

2015년 3월 고용동향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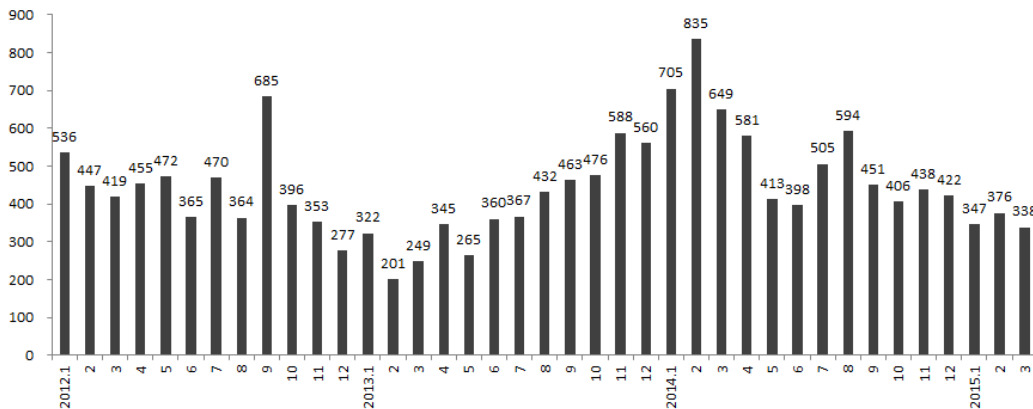
정성미(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복순(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재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1 2015년 3월 고용동향

- 취업자 수 : 2014년 3월 대비 338천 명 증가
 - 기저효과가 반영, 그럼에도 둔화 추세 지속

[그림 1]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2012	2013	2014	2013. 03	2014. 03	2015. 03
15 세 이 상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41,582 (1.3)	42,096 (1.2)	42,513 (1.0)	41,961 (1.3)	42,378 (1.0)	42,874 (1.2)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25,501 (1.6)	25,873 (1.5)	26,536 (2.6)	25,397 (0.7)	26,187 (3.1)	26,577 (1.5)
	취업자 (증가율)	24,681 (1.8)	25,066 (1.6)	25,599 (2.1)	24,514 (1.0)	25,163 (2.6)	25,501 (1.3)
	(증가수)	(436)	(386)	(533)	(249)	(649)	(338)
	(남성)	(234)	(186)	(266)	(148)	(285)	(166)
	(여성)	(203)	(200)	(267)	(101)	(364)	(172)
	참가율	61.3	61.5	62.4	60.5	61.8	62.0
	(남성)	(73.3)	(73.2)	(74.0)	(72.5)	(73.5)	(73.4)
	(여성)	(49.9)	(50.2)	(51.3)	(49.1)	(50.6)	(51.0)
	고용률	59.4	59.5	60.2	58.4	59.4	59.5
	(남성)	(70.8)	(70.8)	(71.3)	(69.9)	(70.6)	(70.5)
	(여성)	(48.4)	(48.8)	(49.5)	(47.4)	(48.7)	(48.9)
	실업자	820	807	937	883	1,024	1,076
	실업률	3.2	3.1	3.5	3.5	3.9	4.0
(남성)	(3.4)	(3.3)	(3.6)	(3.6)	(4.0)	(4.0)	
(여성)	(3.0)	(2.9)	(3.5)	(3.3)	(3.8)	(4.1)	
비경활 (증가율)	16,081 (0.8)	16,223 (0.9)	15,977 (-1.5)	16,564 (2.2)	16,191 (-2.2)	16,298 (0.7)	
15 ~ 64 세	참가율	66.4	66.6	67.8	65.7	67.2	67.7
	(남성)	(77.6)	(77.6)	(78.6)	(76.9)	(78.0)	(78.2)
	(여성)	(55.2)	(55.6)	(57.0)	(54.6)	(56.3)	(57.1)
	고용률	64.2	64.4	65.3	63.4	64.5	64.9
	(남성)	(74.9)	(74.9)	(75.7)	(74.0)	(74.9)	(75.1)
(여성)	(53.5)	(53.9)	(54.9)	(52.7)	(54.1)	(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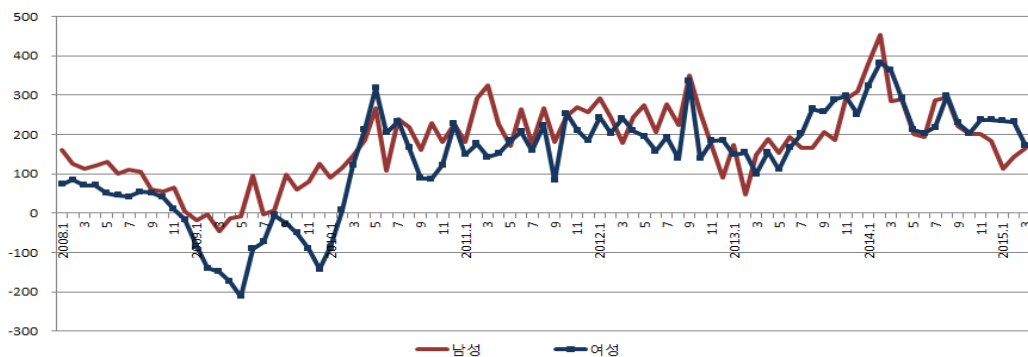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고용률 : 2014년 3월 대비 0.1%p 상승

- 15~64세 고용률은 0.4%p 상승해 64.9%를 기록
-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경제활동인구 진입이 활발해지면서, 15세 이상 고용률과 15~64세 고용률 격차가 조금씩 벌어짐

[그림 2] 성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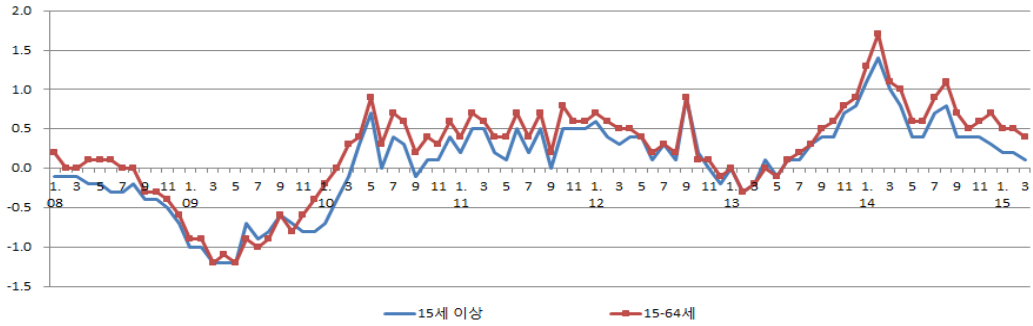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고용률 증감을 전년동월대비로 볼 때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2월 고점을 기점으로 등락을 반복하며 둔화하는 추이를 지속
- ◎ 실업자 수 및 실업률 : 2014년 3월 대비 5만 2천 명 증가, 실업률도 0.1%p 상승
- ◎ 비경제활동인구 : 2014년 3월 대비 10만 7천 명 증가(증가율 0.7%p)
 - 2015년 이후 감소 추세를 뒤집고 (+)증가를 지속,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서 지속가능성 있음
- ◎ 이와 같은 취업자 변동은 민간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그림 6 참조)
 - 2014년 6월 이후 공공부문 취업자 수 감소 추세를 지속, 2014년 3월 대비 57천 명 감소

[그림 3]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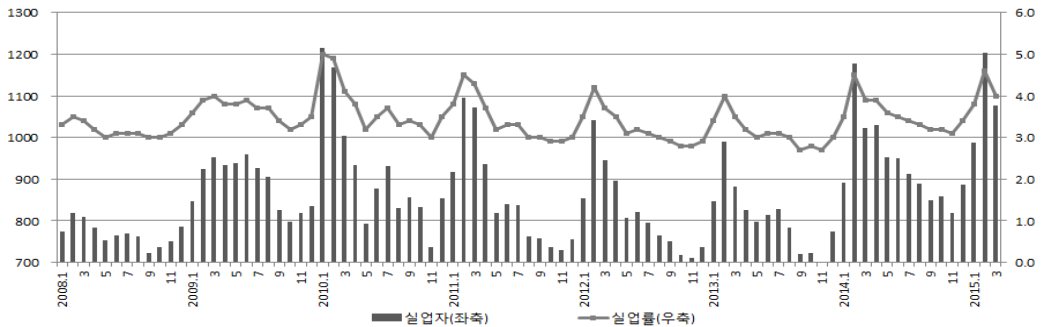
(단위: %p)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4] 실업자,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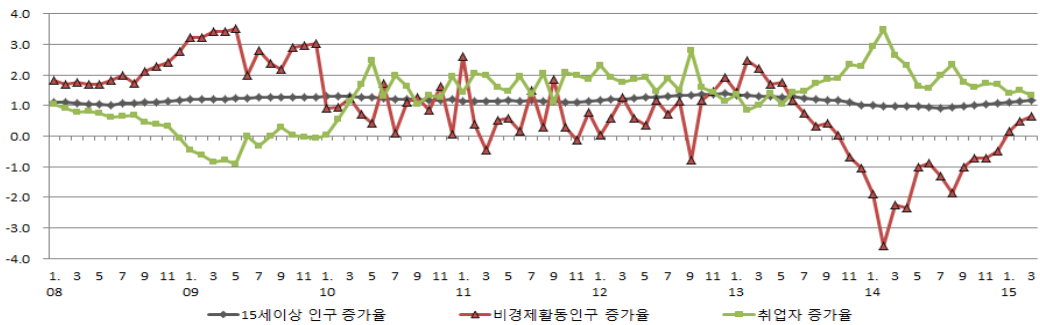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5]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 취업자 증가율,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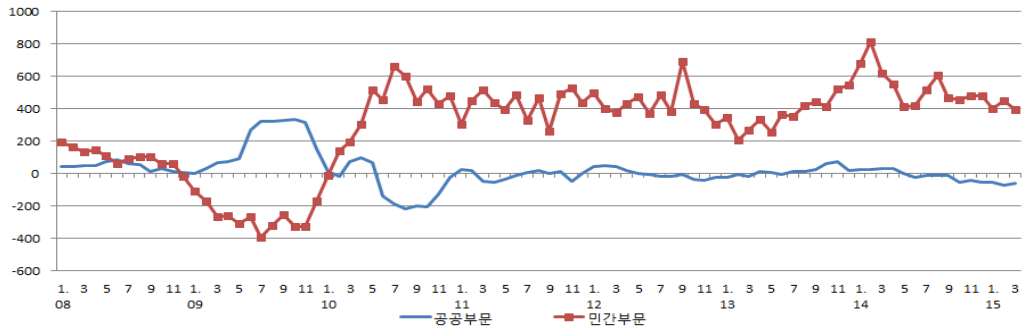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6] 부문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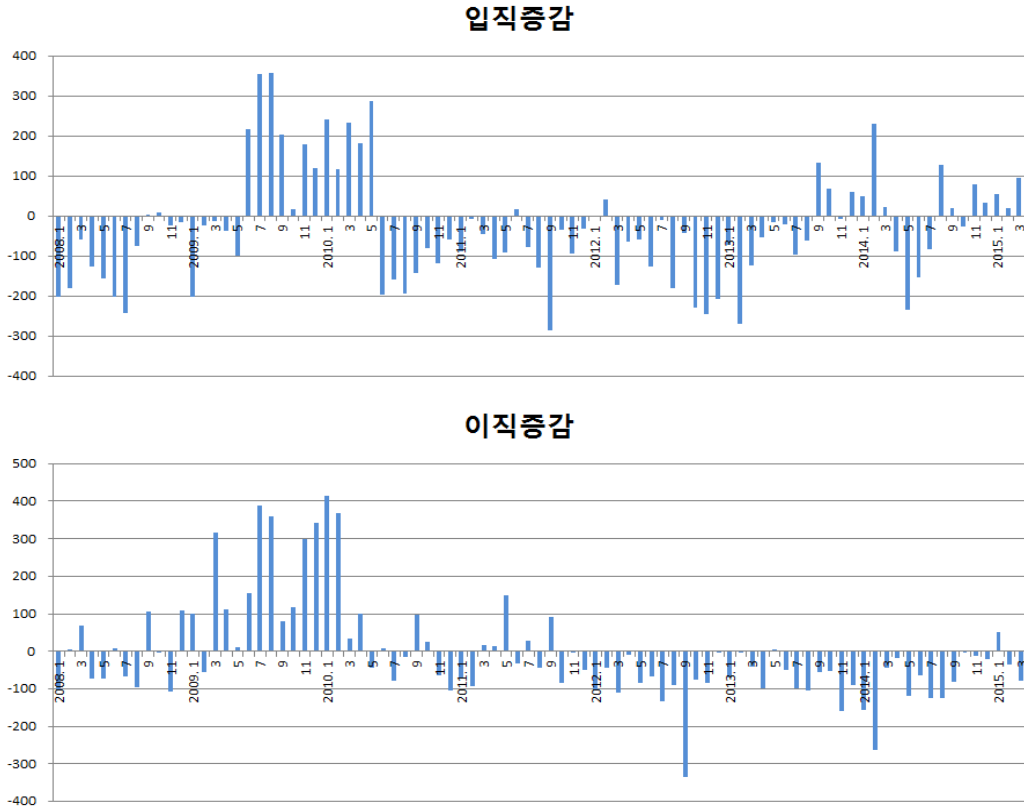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입직과 이직 흐름을 분석해 보면, 2014년 하반기 이후 상승 추이를 유지해 옴. 3월은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했음에도 불구하고 96천 명 증가
 - 입직자 수 증가 규모가 둔화하는 가운데 3월 증가폭 확대(11월 80천 명 ↑ → 12월 35천 명 ↑ → 2015년 1월 54천 명 ↑ → 2015년 2월 20천 명 ↑ → 2015년 3월 96천 명 ↑)
 - 특히 일용직에서 크게 증가
 - 이직자 수는 2015년 2월 이후 연속 감소(2월 36천 명 ↓ → 3월 79천 명 ↓)
 - 개인적 사유로 인한 이직은 여전히 감소 추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작업여건의 불만족(20천 명 ↓), 직장의 휴폐업, 퇴직 및 정리해고(14천 명 ↓) 등 비자발적 이직이나 노동시장 불만족 사유로의 이직도 감소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취업월과 이직월 정보를 제공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계산
 - 입직자 수는 3개월 미만 근속한 사람의 숫자, 이직자 수는 3개월 미만 이직자 수입

[그림 7] 입·이직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주: 입직은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 3개월 미만자 수, 이직은 이직한 지 3개월 미만인 미취업자 수이며, 전년동월대비 증감 수를 그린 것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 각 연도 3월 근속기간별 임금근로자 수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

(단위: 천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 증감	2012 증감	2013 증감	2014 증감	2015 증감
3개월 미만	3,103	2,932	2,810	2,834	2,930	-45	-171	-122	24	96
1년 미만	2,877	2,948	2,824	2,922	2,857	-15	71	-123	98	-65
1년~3년 미만	3,732	3,892	3,953	4,035	4,163	138	160	62	82	128
3년 이상	7,353	7,650	8,156	8,606	8,848	370	296	506	450	243
전 체	17,065	17,421	17,743	18,397	18,799	448	356	322	654	40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 각 연도 3월 3개월 미만 근속자의 종사상 지위(증감 및 비중)

(단위: 천 명)

	증감					비중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	2012	2013	2014	2015
상 용	55	-16	-18	7	-2	21.4	22.1	22.4	22.5	21.7
임 시	-127	1	-110	79	11	36.5	38.7	36.4	38.9	38.0
일 용	27	-155	5	-62	88	42.1	39.2	41.1	38.6	40.3
전 체	-45	-171	-122	24	96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 각 연도 3월 3개월 미만 이직자의 이직사유별 추이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

(단위: 천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4 증감	2015 증감
개인, 가족관련 이유	734	762	715	712	681	623	-31	-58
육아	36	35	42	38	44	42	6	-1
가사	33	28	24	17	15	22	-3	8
심신장애	12	9	5	10	7	7	-3	0
정년퇴직, 연로	18	20	25	27	21	25	-5	3
작업여건(시간, 보수 등) 불만족	225	207	208	190	193	174	3	-20
직장의 휴업, 폐업	35	38	37	28	38	31	10	-7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48	48	43	37	44	38	7	-7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174	191	182	157	175	166	17	-9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	202	186	151	171	121	121	-50	0
기타	30	40	21	27	32	44	6	12
전 체	1,546	1,563	1,453	1,413	1,371	1,292	-43	-7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2015년 3월 고용동향의 부문별 특징

1. 고령층의 고용 증가 주도 및 20대 초반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

- ◎ 2015년 3월 취업자 수 증가는 5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 증가와 더불어 20~24세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에 영향

- 3월에 20~24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83천 명 증가, 반면 25~29세는 38천 명 감소
- 5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는 368천 명(158천+210천 명) 증가

〈표 5〉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 증감(전년 및 전년동월대비)

(단위: 천 명)

	전년 및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감						취업자 수 2015. 3	생산가능인구 증감		
	2012	2013	2014	2013. 3	2014. 3	2015. 3		2013. 3	2014. 3	2015. 3
전 체	437	385	533	249	649	338	25,501	546	417	496
15~29세	-36	-50	77	-128	69	39	3,799	17	-26	-29
15~19세	4	-7	20	-3	28	-5	221	-23	-68	-75
20대	-40	-43	56	-124	41	45	3,579	40	43	47
20~24세	89	29	81	13	65	83	1,352	141	104	53
25~29세	-129	-72	-25	-137	-24	-38	2,226	-101	-61	-6
30대	-30	-21	-21	-1	-24	-3	5,659	-62	-114	-90
30~34세	79	58	12	91	19	-20	2,858	66	-26	-105
35~39세	-110	-78	-34	-92	-43	17	2,801	-128	-88	16
40대	11	22	38	-26	97	-67	6,602	38	-24	-13
50대	270	253	239	213	292	158	5,914	271	218	196
60세 이상	222	181	200	191	215	210	3,527	282	363	43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전년동월대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 증가 지속

- 청년층 취업자 증가는 20~24세 증가의 영향(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남성 49천 명 ↑, 여성 34천 명 ↑
- 반면, 25~29세 취업자 감소는 여성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3월은 여성 21천 명 ↓, 남성 17천 명 ↓

- 여성은 25~29세(0.8%p↓)와 40대(0.5%p↓)에서 고용률이 감소하였고, 그 외 연령에서는 증가

〈표 6〉 연령계층별 고용률 추이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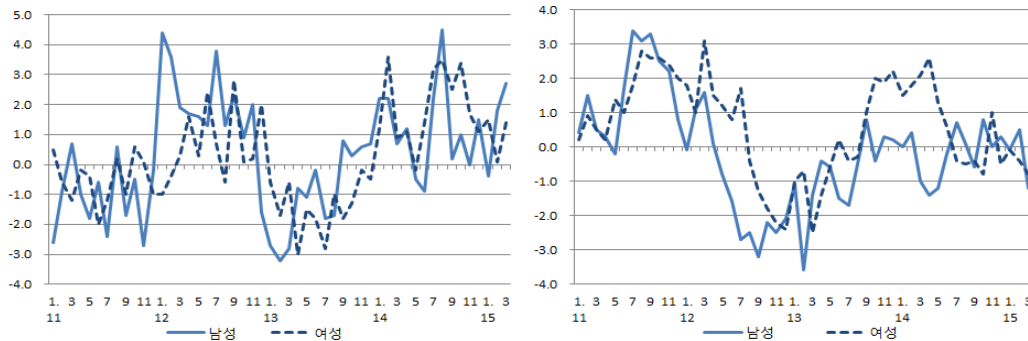
		2012	2013	2014	2013. 3	2014. 3	2015. 3	증감 (2014. 3→ 2015. 3)
전 체	전 체	59.4	59.5	60.2	58.4	59.4	59.5	0.1
	15~29세	40.4	39.7	40.7	38.7	39.5	40.0	0.5
	15~19세	7.0	6.9	7.7	6.0	7.0	7.0	0.0
	20대	58.1	56.8	57.4	55.8	56.0	56.3	0.3
	20~24세	44.5	43.2	44.8	41.3	42.0	44.0	2.0
	25~29세	69.2	68.8	69.1	68.3	68.9	67.8	-1.1
	30대	72.7	73.2	73.9	72.2	73.0	73.8	0.8
	30~34세	72.2	72.9	74.1	72.0	72.9	74.4	1.5
	35~39세	73.2	73.5	73.7	72.5	73.1	73.2	0.1
	40대	78.3	78.4	79.0	77.5	78.9	78.2	-0.7
	50대	72.2	73.1	74.2	71.9	73.6	73.8	0.2
60세 이상	37.5	38.4	39.0	36.6	37.5	38.1	0.6	
남 성	전 체	70.8	70.8	71.3	69.9	70.6	70.5	-0.1
	15~29세	38.7	38.1	38.9	36.8	37.4	38.0	0.6
	15~19세	5.7	5.9	6.8	5.0	6.6	6.4	-0.2
	20대	57.3	55.7	55.8	54.4	53.7	54.1	0.4
	20~24세	39.1	38.2	39.3	34.5	35.2	37.9	2.7
	25~29세	70.4	69.6	69.4	69.8	68.8	67.6	-1.2
	30대	90.3	90.2	90.9	89.7	90.4	90.6	0.2
	30~34세	89.0	88.4	89.9	87.7	88.9	89.1	0.2
	35~39세	91.7	92.1	92.1	91.8	92.0	92.0	0.0
	40대	91.7	92.0	92.7	91.6	92.6	91.8	-0.8
	50대	86.3	86.7	87.5	85.8	86.8	87.0	0.2
60세 이상	49.9	51.0	51.4	49.3	50.3	50.5	0.2	
여 성	전 체	48.4	48.8	49.5	47.4	48.7	48.9	0.2
	15~29세	42.1	41.3	42.5	40.5	41.6	42.1	0.5
	15~19세	8.3	7.9	8.6	7.1	7.5	7.7	0.2
	20대	58.8	57.8	59.0	57.0	58.3	58.5	0.2
	20~24세	48.9	47.5	49.5	47.0	47.9	49.3	1.4
	25~29세	68.0	68.0	68.8	66.8	68.9	68.1	-0.8
	30대	54.5	55.5	56.3	54.2	55.0	56.4	1.4
	30~34세	54.8	56.7	57.7	55.6	56.3	58.9	2.6
	35~39세	54.1	54.4	54.9	52.7	53.7	54.0	0.3
	40대	64.6	64.6	65.1	63.1	64.9	64.4	-0.5
	50대	58.1	59.5	60.9	58.1	60.5	60.6	0.1
60세 이상	27.9	28.6	29.3	26.9	27.7	28.4	0.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2013년 하반기 이후 고용률 하락 흐름에서 벗어난 20대는 최근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회복세를 보임
 - [그림 9]를 보면, 2013년 하반기 이후의 청년층 고용률 증가를 이끈 25~29세 여성은 2014년 상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동시에 남성 고용률도 감소를 지속
 - 청년층 가운데 20~24세 고용률은 취업자 증가 영향이 반영되어 고용률이 남성 2.7%p ↑, 여성 1.4%p ↑ 증가

[그림 9]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 추이 : 20~24세(좌측), 25~29세(우측)

(단위: %p)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20~24세 고용률 상승은 재학생(아르바이트) 고용률의 증가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3.1%p 증가한 반면, 졸업생 고용률은 2014년 12월 이후 감소 추세를 이어가며 3월 0.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7> 20~24세 재학 여부별 고용률과 근속기간별 임금근로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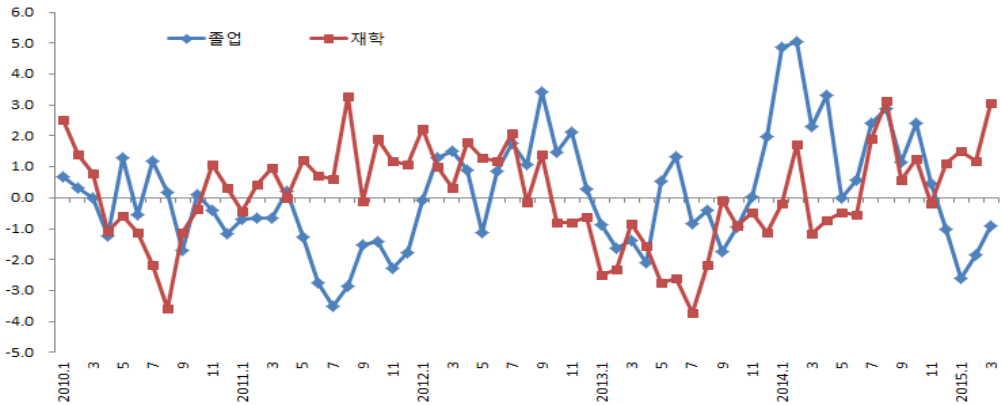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졸업생 고용률	재학생 고용률	근속기간별			
			3개월 미만	3개월~1년 미만	1~3년 미만	3년 이상
2010. 3	62.8	24.8	377	333	276	57
2011. 3	62.1	25.8	374	342	272	55
2012. 3	63.7	26.1	373	394	305	51
2013. 3	62.3	25.3	339	399	326	54
2014. 3	64.5	24.1	358	440	356	52
2015. 3	63.6	27.2	375	438	398	7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0] 20~24세 졸업생과 재학생의 고용률 증감 추이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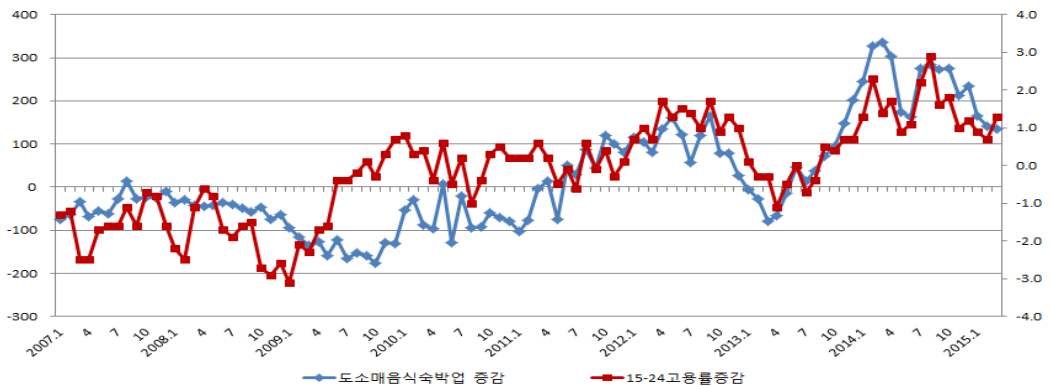


◎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며 15~24세의 고용 변화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변화와 깊은 연관을 보임(그림 11 참조)

- 2011년 이후 15~24세 취업자가 아르바이트 등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중심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산업의 흐름과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음
- 즉,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기에 15~24세 고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 이 두 산업에 속한 15~24세는 주로 서비스 판매업 등 저임금 직업군에 포진. 특히 재학생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그림 11] 전년동월대비 15~24세 고용률 증감 및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p)



◎ 30대 초반 연령층을 추세로 보면, 여성 중심으로 고용률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는 모습

- [그림 12] 고용률 증감 추이를 보면, 여성 30대 초반에서 2014년 초반을 기점으로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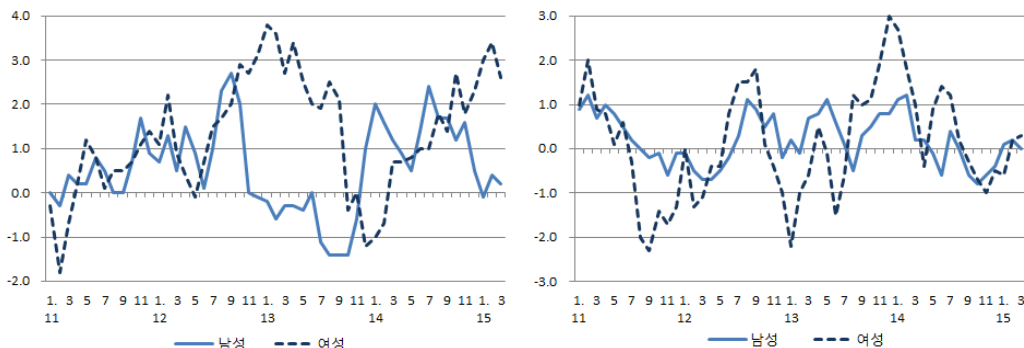
- 인구 감소에도 취업자 증가가 유지되는 영향으로 고용률이 증가

- 특히 여성 30~34세는 금융위기를 거친 2009년 이후 빠르게 고용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12 참조)

※ 25~29세 여성의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해 현재는 남성의 고용률과 큰 차이가 없어진 흐름과 마찬가지로 30~34세의 여성 고용률도 만혼이나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 증가의 영향으로 취업이 활발해진 노동공급 효과로 해석 가능

[그림 12]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 추이 : 30~34세(좌측), 35~39세(우측)

(단위 : %p)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40대 취업자가 4개월 연속 하락한 영향은 남성 임시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감소가 주된 영향을 미침(그림 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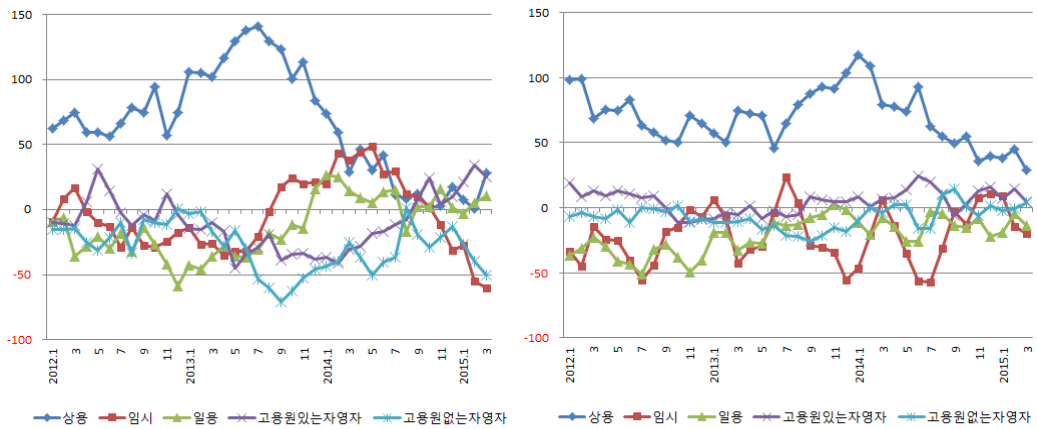
- 40대 취업자 중 제조업(25천 명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26천 명 ↑) 증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취업자는 감소했거나 변화가 미미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40대 취업자 규모가 20만 명대로 최근 출판과 방송업에서 40대 취업자가 늘어났고, 이들의 직종은 대부분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와 사무종사자를 중심으로 늘어났음

- 40대 취업자의 감소 영향으로 남성 고용률은 감소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여성 40대는 3월 감소로 돌아섬(그림 13 참조)

[그림 13] 성별 40대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 남성(좌측), 여성(우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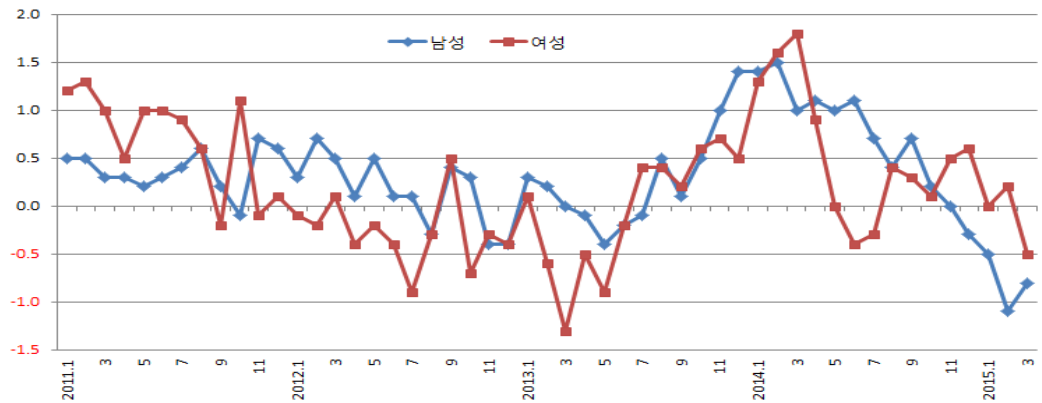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4] 40대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 추이

(단위 : %p)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상용직·임시직 중심의 취업자 수 증가

◎ 취업자 수 증가는 상용직 중심의 임금근로자 증가가 주요 요인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331천 명 증가 및 임시직 43천 명 증가, 일용직 28천 명 증가에 따라 총 402천 명 증가
-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87천 명 ↑)는 증가하였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07천 명 ↓)와 무급가족종사자(45천 명 ↓) 감소에 따라 64천 명 감소

〈표 8〉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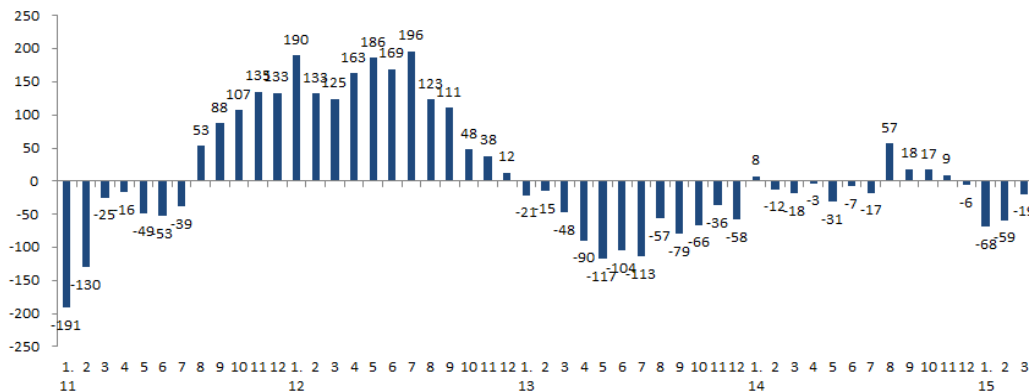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2014	2013. 3	2014. 3	2015. 3
전 체	436	386	533	249	649	338
임금	315	483	548	322	654	402
상용직	436	615	443	611	524	331
임시직	-2	-96	139	-228	157	43
일용직	-120	-37	-35	-61	-27	28
비임금	121	-97	-15	-73	-5	-64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43	-39	40	-30	1	87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81	-28	-39	-18	-19	-107
무급가족종사자	-3	-30	-16	-25	13	-4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15] 전년동월대비 자영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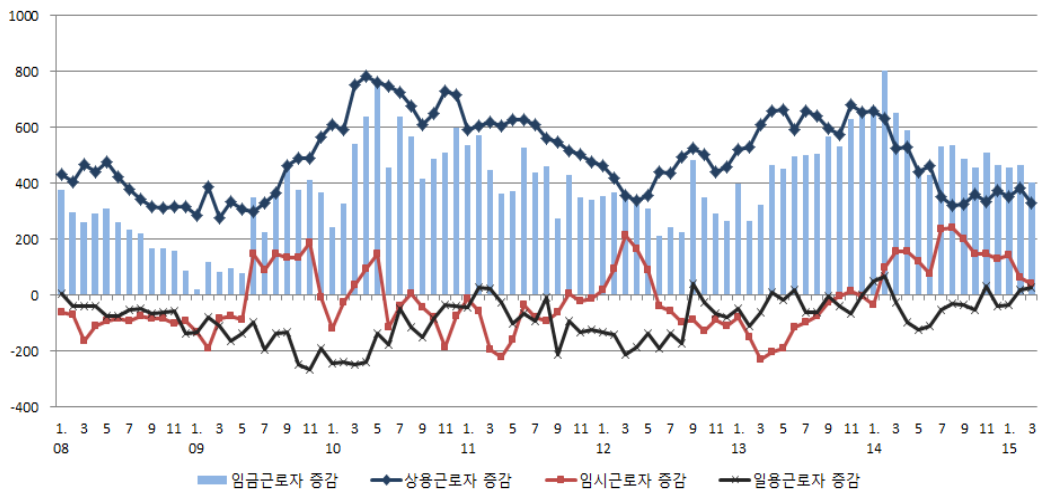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전년동월대비로 보면, 임금근로자의 증가폭은 2014년 2월 803천 명 증가로 정점을 찍고 상용직의 급감으로 하반기까지 빠르게 둔화되다가 7월 이후 40만 명을 하회하는 수준을 지속 유지
 - 상용직은 2013년 3월부터 60만 명대 증가로 증가폭이 확대된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2014년 이후 증가폭이 가파르게 둔화되었지만, 8월 이후 증가 규모가 30만 명대 초반의 저점을 기록한 후 최근에 올수록 증가 규모가 늘어나 40만 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회복
 - 임시근로자는 2014년 2월 (+)로 전환된 후 등락을 반복하며 증가 추세를 이어갔지만, 8월 242천 명 ↑로 고점을 기록한 후 가파르게 증가 추세 둔화
 -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중심으로 증가했던 임시직이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고,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업의 임시직 감소가 두드러짐
 - 반면, 2014년 내내 감소 국면에 있던 일용직 근로자는 2월 20천 명 ↑로 (+)전환된 후 3월도 28천 명 증가로 두 달째 연속 증가세를 보임

[그림 16]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전년동월대비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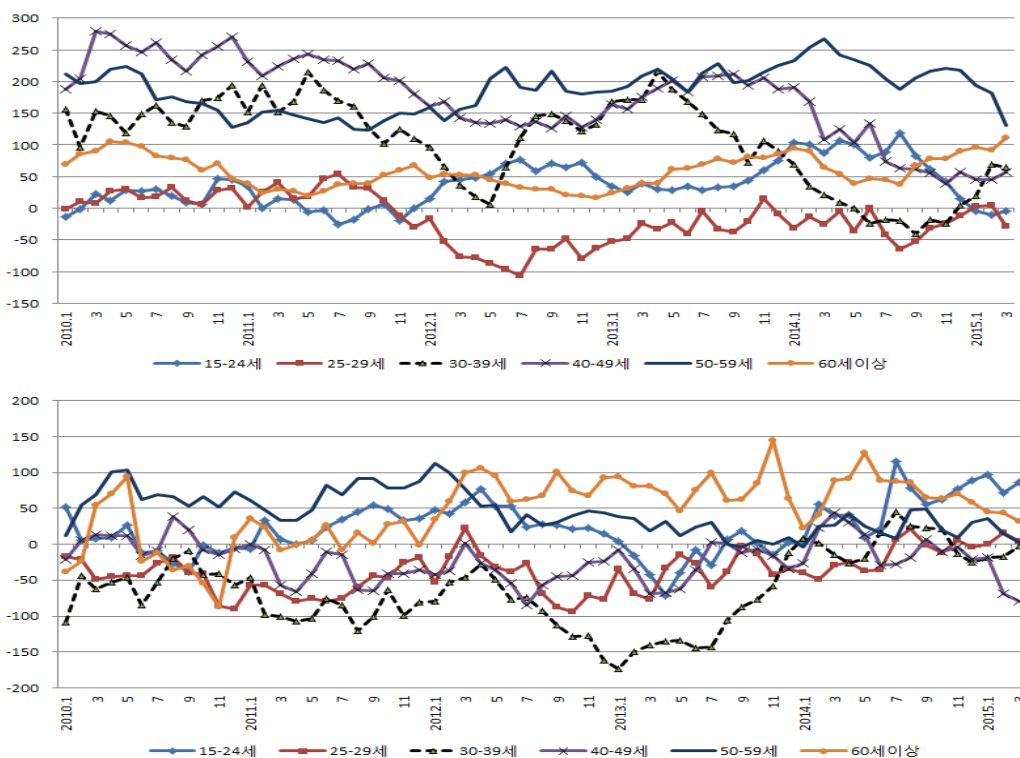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 연령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증가는 50대(131천 명 ↑)와 60세 이상(111천 명 ↑)이 주도
 - 50대의 상용직 증가 추세가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60세 이상의 증가폭이 가파르게 상승
 -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30대에서 상용직 증가 추세가 이어짐과 동시에 40대에서 6개월째 연속 50천 명 증가를 유지하는 가운데 15~29세 청년층의 상용직은 2014년 11월 이후 감소를 지속(그림 17 참조)

- ◎ 전년동월대비 임시직 증가는 15~24세(87천 명 ↑)가 주도하였고, 60세 이상(32천 명 ↑)에서 증가
 - 핵심연령층(30~40대)의 임시직은 감소 추세를 이어감

[그림 17] 상용근로자(위)와 임시근로자(아래) 연령별 전년동월대비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9〉 종사상 지위별·연령별 취업자 수 전년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증감			전년동월대비 증감		
		2012	2013	2014	2013. 3	2014. 3	2015. 3
15~24세	상용직	56	39	82	39	88	-5
	임시직	39	-16	54	-42	40	87
	일용직	2	-1	-24	-2	-5	-15
	고용원 있는 자영자	0	0	2	-4	2	3
	고용원 없는 자영자	1	-7	-5	6	-16	-1
	무급가족종사자	-5	7	-7	13	-15	8
25~29세	상용직	-69	-26	-28	-24	-26	-29
	임시직	-47	-37	-16	-77	-29	4
	일용직	-10	3	5	-4	-1	-6
	고용원 있는 자영자	1	-11	-2	-14	-7	3
	고용원 없는 자영자	-6	0	11	-14	25	-8
	무급가족종사자	2	-1	7	-3	13	-2
30~39세	상용직	90	145	-1	172	22	65
	임시직	-86	-113	4	-140	-14	-3
	일용직	-38	-25	-14	-26	-31	9
	고용원 있는 자영자	-10	-12	19	-7	19	-37
	고용원 없는 자영자	20	-8	-21	12	-20	-15
	무급가족종사자	-7	-8	-7	-12	1	-22
40~49세	상용직	141	190	99	176	108	58
	임시직	-39	-28	-1	-68	44	-80
	일용직	-64	-40	-5	-69	7	-3
	고용원 있는 자영자	5	-29	-2	-15	-24	29
	고용원 없는 자영자	-21	-53	-31	-27	-29	-47
	무급가족종사자	-11	-18	-21	-23	-9	-25
50~59세	상용직	182	206	226	209	267	131
	임시직	54	17	25	18	27	3
	일용직	-15	23	-12	32	-17	21
	고용원 있는 자영자	22	10	16	-5	25	49
	고용원 없는 자영자	36	-5	-23	-21	-25	-22
	무급가족종사자	-9	2	8	-20	15	-24
60세 이상	상용직	37	61	66	39	65	111
	임시직	77	81	74	81	88	32
	일용직	5	3	16	8	21	22
	고용원 있는 자영자	26	4	8	16	-13	39
	고용원 없는 자영자	51	44	31	27	46	-14
	무급가족종사자	26	-11	5	20	8	2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전년동월대비 업종별 상용직 증감을 보면, 제조업(162천 명 ↑)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7천 명 ↑), 도소매업(51천 명 ↑)에서 증가가 크게 나타남
- 상용직 중 운수업(42천 명 ↓), 공공행정서비스(34천 명 ↓), 금융·보험업(31천 명 ↓)에서 감소가 두드러짐
 - 임시직은 여가관련 서비스업(57천 명 ↑), 음식·숙박업(48천 명 ↑), 건설업(29천 명 ↑)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이 세 산업은 임시직 증가가 크게 둔화하는 가운데에서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 증가 규모가 상당했던 도소매업은 2014년 7월 76천 명 ↑ 이후 95천 명 ↑(8월) → 86천 명 ↑(9월) → 67천 명 ↑(10월) → 59천 명(11월) ↑ → 42천 명(12월) ↑ → 54천 명(1월) ↑ → 3천 명(2월) ↑ → 0천 명(3월) ↑으로 꾸준히 감소
 - 반면, 제조업은 32천 명 감소하였고,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금융·보험업에서 30천 명이 감소, 기타 서비스업에서도 25천 명 감소

〈표 10〉 2015년 3월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업종별 증감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증감	상용직 수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	전년동월대비 임시직 증감	전년동월대비 일용직 증감
제조업	162	3,237	82.9	-32	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8	86	92.7	-2	1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	67	79.7	6	1
건설업	-5	554	41.5	29	28
도소매업	51	1,234	54.4	0	3
운수업	-42	559	74.8	24	5
음식·숙박업	21	274	20.8	48	24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0	613	89.3	18	1
금융·보험업	-31	490	64.8	-30	0
부동산업 및 임대업	-6	195	54.8	1	-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3	769	89.6	6	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41	783	68.4	-14	27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4	712	76.4	-23	0
교육서비스업	45	993	68.4	-7	-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7	1,240	76.7	9	-4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	111	40.2	57	-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2	394	51.7	-23	-25
기타	-2	54	25.1	-25	-22
전 체	331	12,364	65.8	43	2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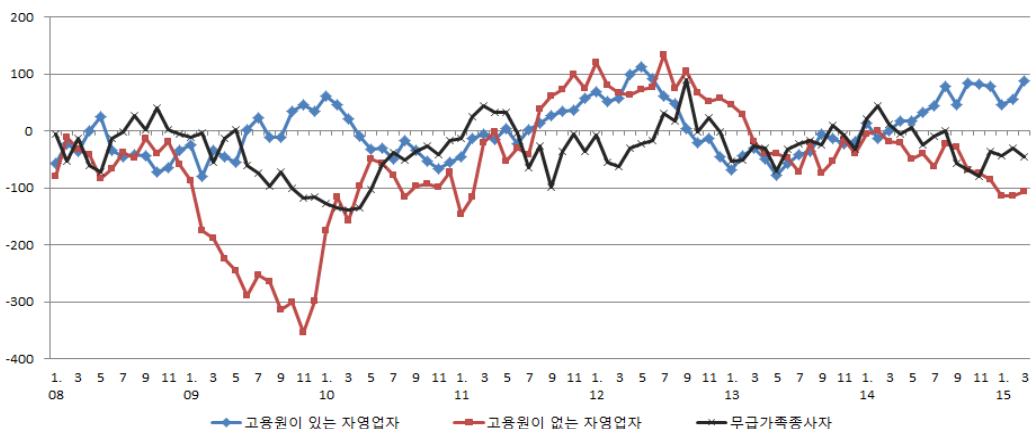
3. 비임금근로자 추이

◎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감소세 지속

-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는 2013년 상반기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400만 명 수준에서 등락하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50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위기 이후로 큰 폭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후 다소 회복하는 듯하였으나 2013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를 보임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3년 하락세를 벗어나 2014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 증가 추세가 둔화
 -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장기적으로 볼 때 1999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이며 강한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외환위기와 함께 크게 감소하였다가 이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는바, 2005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단기적인 일부 등락을 제외하면 지속적이며 강한 감소 추세

[그림 18] 최근 전년동월대비 자영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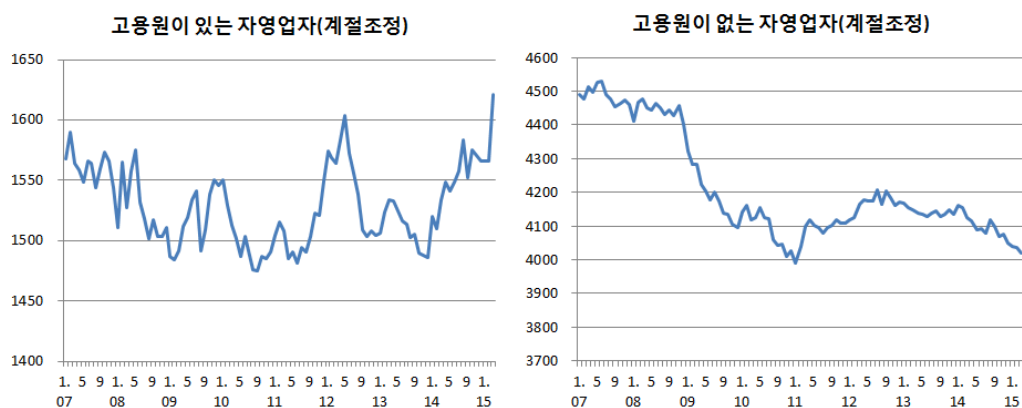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 ◎ 계절조정 수치로 최근 추이를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증감폭이 크지 않으나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소폭의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당분간 감소 추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

[그림 19] 고용원 여부별 자영업자 수 추이(계절조정)

(단위: 천 명)



자료 : 통계청, KOSIS.

- ◎ 2015년 3월 전년동월대비 자영업자의 업종별 증감을 살펴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음식·숙박업(24천 명 ↑), 건설업(21천 명 ↑)에서 주로 증가
-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농림어업(55천 명 ↓), 음식·숙박업(32천 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9천 명 ↓), 교육서비스업(15천 명 ↓) 등에서 주로 감소하였는바, 이는 추세적 경향임

〈표 11〉 2015년 3월 자영업자의 업종별 증감

(단위: 천 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영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영업자 수
농업, 임업 및 어업	16	58	-55	766
제조업	8	211	-15	191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	3	-1	2
건설업	21	183	3	233
도소매업	13	370	2	876
운수업	0	32	8	603
음식·숙박업	24	317	-32	255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	23	4	47
금융·보험업	-2	7	-4	20
부동산업 및 임대업	2	27	19	11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	62	6	8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	29	5	36
교육서비스업	9	89	-15	25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	93	-1	5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	31	-14	9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5	82	-19	371
기타	1	1	3	17
전 체	87	1,618	-107	3,97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4.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 ◎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던 비경제활동인구가 2015년 들어 석 달째 연속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주된 이유는 '쉬었음'의 증가로 2014년 3월 대비 181천 명이 증가하였고, 취업준비 비경활은 여전히 증가 국면에 있음
 - 그러나 정규 교육기관의 통학(230천 명↓)의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 규모는 크게 감소

〈표 12〉 비경활인구 활동상태별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2014	2013. 3	2014. 3	2015. 3	2015. 3 비경활 인구수
육아	-2	1	-40	17	-55	28	1,454
가사	123	-3	-130	117	-202	-56	5,921
정규 교육기관 통학	23	103	-91	120	-22	-230	3,817
입시학원 통학	-1	-24	12	-19	-3	18	76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34	-2	-2	34	-36	60	249
취업준비	22	15	-12	36	-11	-42	371
진학준비	-31	-5	-18	-9	21	-5	118
연로	148	54	93	129	96	65	2,007
심신장애	-22	11	21	1	11	39	442
군입대 대기	3	1	9	7	-7	13	94
쉬었음	-53	-7	-92	-68	-174	181	1,598
기타	-46	-9	4	-7	9	37	152
비경활 계	128	141	-246	358	-372	106	16,298
취업준비*	-12	14	-14	70	-46	18	620
통학**	-12	77	-81	135	-61	-153	4,141

주: *취업준비는 취업준비와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의 합.

**통학은 정규 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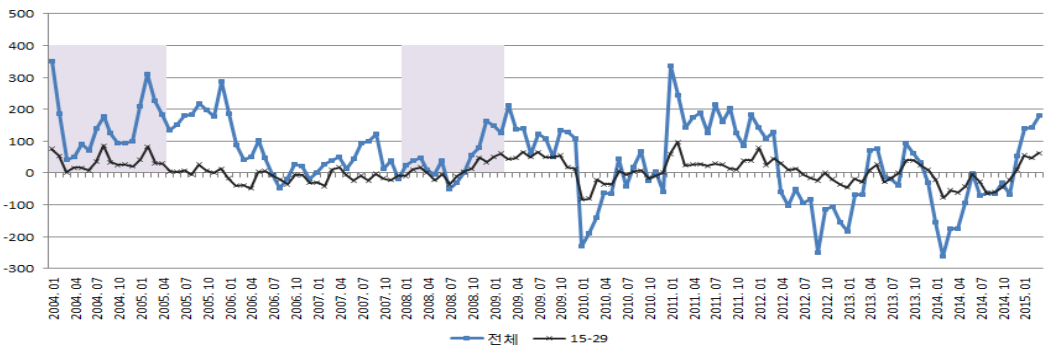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쉬었음’은 최근 석 달 연속 증가

- 2014년 2월 263천 명 감소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폭이 추세적으로 줄어들며, 2014년 12월 53천 명 ↑, 2015년 1월 139천 명 ↑, 2월 143천 명 ↑, 3월 181천 명 ↑ 증가로 증가폭이 확대됨
- ‘쉬었음’의 전체 추세의 변화는 남성을 중심으로 이어지는데, 증감에는 기저효과도 반영이 되었지만, 남성에서 급격히 증가한 영향이 주된 이유
- 연령별로 보면, 주로 60세 이상(92천 명 ↑)의 영향이며, 20대(41천 명 ↑), 40대(27천 명 ↑)의 증가도 기인

[그림 20] 쉬었음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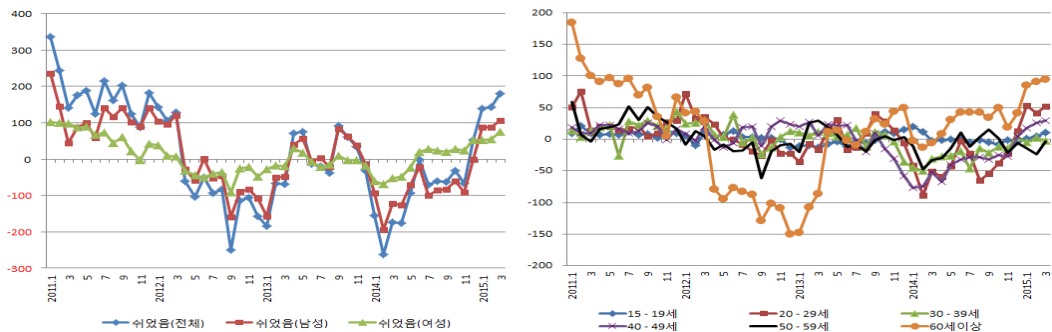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주: 음영은 경기순환 기준순환일 기준 수축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21] 쉬었음 성별(좌측)·연령별(우측)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참고〉 고용보조지표

- ◎ 2015년 3월 고용보조지표에 따르면, 실업률은 4.0%, 고용보조지표 1은 5.9%, 고용보조지표 2는 10.0%, 고용보조지표 3은 11.8%로 나타남
 - 2015년 3월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 1~3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여성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시도가 활발했음을 보여줌
 - 연령별로 보면, 실업률이 가장 높은 15~24세와 25~29세의 고용보조지표 1, 2, 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5~24세의 경우 고용보조지표 3이 27.1%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보면, 실업률은 초대졸이 5.1%로 가장 높았고, 고용보조지표 1, 2, 3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13〉 인적 특성별 고용보조지표

(단위: 천 명, %)

		실업률		고용보조 지표 1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고용보조 지표 2	잠재경제 활동인구	잠재취업 가능자	잠재 구직자	고용보조 지표 3
		실업률	실업자							
전체		4.0	1,076	5.9	506	10.0	1,773	30	1,743	11.8
성별	남성	4.0	619	5.9	294	9.1	853	17	835	10.9
	여성	4.1	457	6.0	211	11.4	920	12	908	13.1
연령	15~24세	12.3	221	14.1	33	25.5	318	6	312	27.1
	25~29세	9.5	234	10.6	26	19.1	292	6	286	20.0
	30~39세	3.3	194	4.5	68	7.3	255	3	252	8.5
	40~49세	2.6	175	4.5	128	6.3	265	4	261	8.1
	50~59세	2.5	149	4.9	147	7.0	293	9	284	9.3
	60세 이상	2.8	103	5.7	105	11.4	351	3	348	14.0
학력	고졸 미만	3.0	131	6.3	144	9.6	320	5	315	12.7
	고졸	4.2	444	6.2	210	10.8	780	19	762	12.7
	초대졸	5.1	182	6.2	39	10.6	216	2	214	11.6
	대졸 이상	3.9	319	5.3	112	9.0	456	4	453	10.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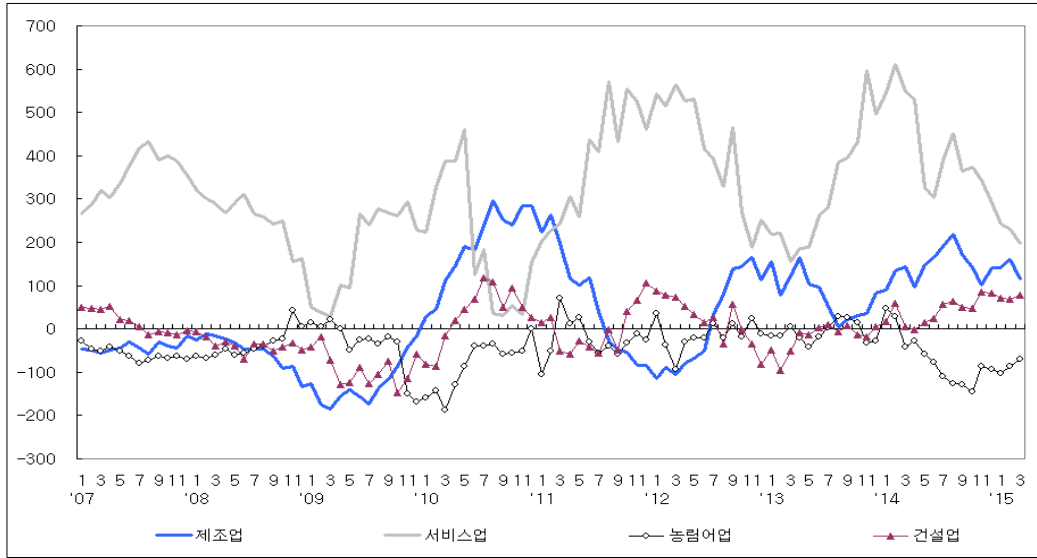
- ※ 1)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자
- 2) 잠재취업가능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
- 3) 잠재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
- 4) 잠재경제활동인구=잠재취업가능자+잠재구직자
- 5) 확장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
- 6) 고용보조지표 1=(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 7) 고용보조지표 2=(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
- 8) 고용보조지표 3=(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

5. 사업체 특성에 따른 취업자 변화

- ◎ 2015년 3월 취업자는 서비스업 고용 부진으로 인한 고용 증가폭 둔화
 - 최근 제조업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고용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임. 2015년 3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116천 명 증가
 - 이러한 제조업 고용의 지지 역할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의 고용 실적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농림어업의 고용 또한 부진한 가운데 고용 둔화세가 지속
 - 2014년 3월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551천 명 ↑)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서비스업 고용 둔화폭은 큼(197천 명 ↑)
 - 서비스업의 고용은 남성(3천 명 ↑)을 중심으로 크게 둔화하고 있으며, 10만 명 이상의 견조한 고용 증가세를 보였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 증가폭이 크게 둔화(82천 명 ↑)
 -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는 2014년 2월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이면서 2014년 하반기 저점을 찍은 후 점차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는 있으나 고용 감소세는 여전. 그러나 2015년 3월 현재 60~64세 연령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세가 크게 둔화
 - 한편 건설업의 고용은 2014년 4월 이후 증가세가 지속(전년동월대비 79천 명 ↑)

[그림 22]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14〉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2014	2013. 3	2014. 3	2015. 3
취업자 전체	436	386	533	249	649	338
농림어업	-14	-8	-68	5	-41	-70
건설업	22	-19	42	-51	5	79
제조업	14	79	146	123	143	116
서비스업	416	318	423	156	551	197
도소매업	51	-29	132	-89	170	74
운수업	48	34	-6	20	7	-14
음식·숙박업	53	64	127	10	166	60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	-8	22	-21	15	55
금융·보험업	-4	22	-26	-26	15	-6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0	57	7	93	-28	58
공공행정 등	0	14	-8	-16	29	-57
교육서비스업	58	4	59	-21	91	2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8	155	139	147	120	8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	-17	1	-50	8	44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25	26	-13	59	1	-53
가구내 고용활동 등	13	5	-56	5	-54	-35
민간부문	436	372	541	265	619	395
공공부문	0	14	-8	-16	29	-5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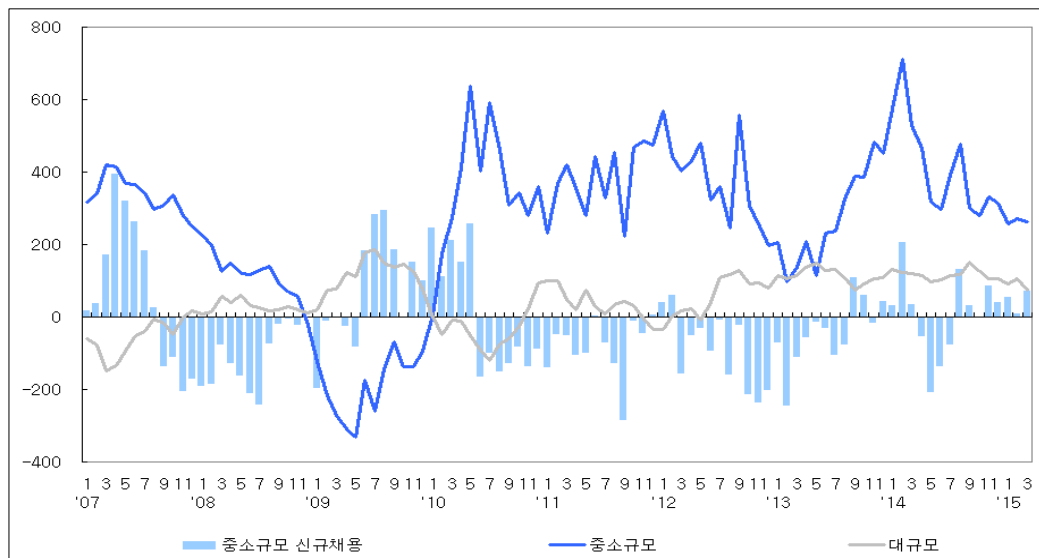
◎ 중소기업의 고용 둔화폭 확대

- 중소기업의 취업자는 2014년 3월 취업자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63천 명 증가하는 데 그침. 이는 서비스업(192천 명↑), 임시직(14천 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07천 명↓)를 중심으로 고용 증가폭이 둔화되거나 감소한 데 기인
- 중소기업의 임시직은 전년동월대비 14천 명 증가하는 데 그침. 이는 2014년 3월 임시직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 중소기업의 임시직은 주로 여성, 서비스업, 50세 이상 연령층을 중심으로 고용이 둔화하거나 감소
- 고용원이 없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남성, 농림어업, 음식·숙박업, 여가관련 서비

- 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한 반면 부동산 및 임대업은 오히려 증가(19천 명 ↑). 특히 사라진 고용원이 없는 중소기업 자영업은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 집중(107천 명 ↓)
- 한편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7천 명 증가
 - 중소기업 사업체의 신규채용 규모는 5개월째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채용 규모도 확대(73천 명 ↑). 25~34세 연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신규채용이 활발

[그림 23]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15〉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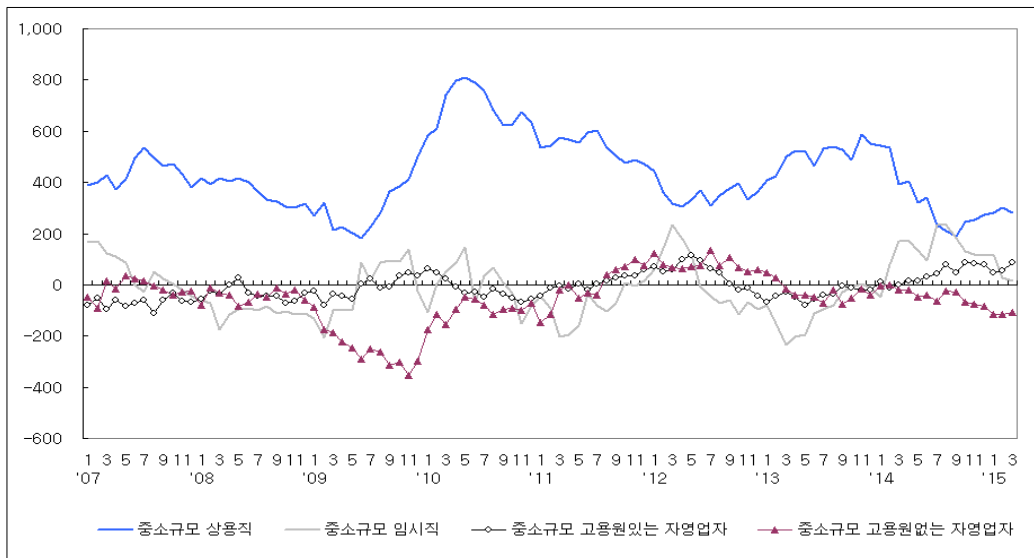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2014	2013. 3	2014. 3	2015. 3
중소규모 취업자 전체		381	272	416	136	530	263
(신규채용)		-90	-43	8	-111	36	73
산업별	제조업	-41	39	79	63	86	38
	서비스업	417	256	361	117	478	192
	도소매음식	112	33	241	-76	295	150
	보건업 등	89	129	127	114	126	54
	금융보험업	9	21	-28	-15	1	-49
	기타 개인서비스업	25	24	-13	58	-1	-49
	자가소비생산활동	25	24	-13	58	-1	-49
	건설업	18	-20	52	-52	16	83
종사상 지위별	상용직	355	505	328	500	392	280
	임시직	22	-100	134	-233	171	1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43	-39	40	-30	1	8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81	-28	-39	-18	-19	-107
소 계		22	-100	134	-233	171	14
임시직	여성	29	-34	48	-97	108	17
	음식·숙박업	-12	44	71	20	100	46
	금융보험업	5	3	-1	-18	5	-23
	공공행정 등	-13	4	2	3	-6	-28
	보건업 등	2	-14	39	-11	65	6
	여가관련 서비스업	4	-7	-6	-12	-11	56
	20대	5	-53	-16	-102	-3	60
	50대	69	29	15	21	20	5
	60세 이상	57	76	86	77	94	26
	10인 미만	63	-17	116	-82	192	-94
소 계		83	10	-33	-18	-19	-107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남성	68	25	-22	2	-23	-110
	농림어업	-1	-3	-20	1	-32	-55
	제조업	-5	-8	-3	-4	0	-15
	음식·숙박업	10	-10	11	-25	32	-32
	여가관련 서비스업	7	-10	5	-21	10	-14
	개인서비스업	3	6	-31	7	-38	-19
	부동산 및 임대업	-8	-10	2	-13	1	19
	40대	-21	-31	-51	-27	-29	-47
	50세 이상	115	36	34	7	21	-3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4] 중소기업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은 최근 10만 명 이상의 고용 증가폭을 유지해 왔으나 2015년 3월 현재 76천 명 증가하는 데 그침. 이는 공공행정, 금융보험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폭 둔화에 기인
- 한편 제조업 부문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은 전년동월대비 78천 명 증가
-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직의 고용 증가폭이 둔화(51천 명 ↑)된 반면 임시직은 28천 명 증가. 20대 청년층의 임시직 채용이 전년동월대비 31천 명 증가한 반면 20대 상용직에서 20천 명 감소

〈표 16〉 대규모 사업체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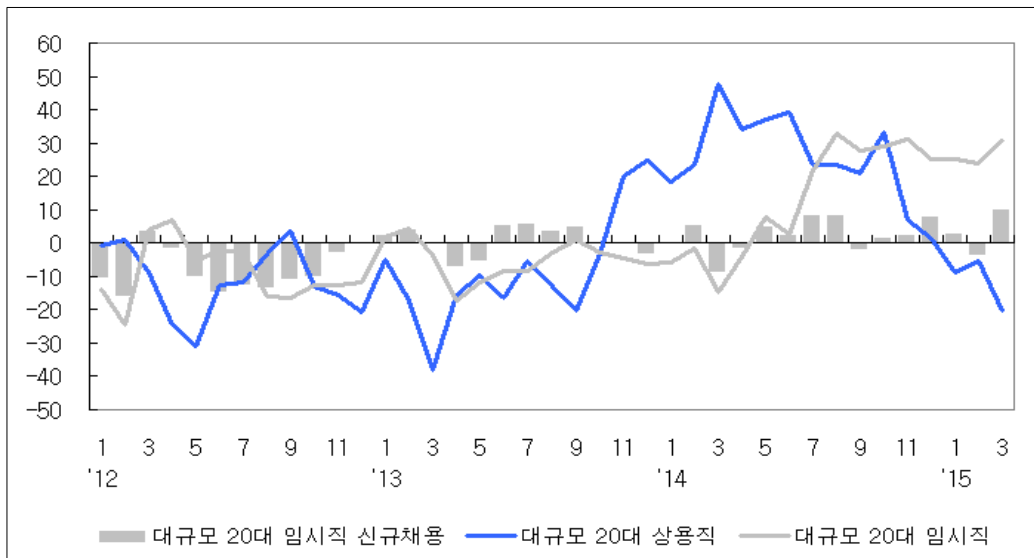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2014	2013. 3	2014. 3	2015. 3
대규모 취업자 전체		55	114	117	113	119	76
(신규채용)		-18	5	-10	-11	-12	24
산업별	서비스업	-1	62	62	38	73	5
	공공행정 등	-5	1	-3	-13	23	-40
	금융·보험업	-13	1	2	-11	14	-18
	도소매음식·숙박업	-8	2	18	-3	41	-16
	출판, 영상 등	2	-4	11	-14	2	13
	보건업 등	-1	26	12	33	-6	27
	제조업	55	41	67	61	57	78
종사상 지위별	상용직	81	110	115	111	132	51
	임시직	-24	4	5	5	-14	28
상용직	소 계	81	110	115	111	132	51
	제조업	52	37	72	57	59	78
	출판·영상 등	2	-2	12	-8	4	15
	보건업 등	4	27	12	35	-4	24
	도소매업	-4	4	14	0	30	-9
	음식·숙박업	-1	4	1	3	9	-6
	금융·보험업	-12	4	1	-3	9	-10
	공공행정 등	5	0	-2	-13	24	-43
	20대	-11	-8	26	-38	48	-20
	30대	63	71	7	131	7	-24
40대	-2	9	24	-22	4	63	
임시직	소 계	-24	4	5	5	-14	28
	교육서비스업	-8	7	8	5	-3	16
	공공행정 등	-7	0	-1	-0	-3	5
	보건업 등	-4	-1	-0	-2	-2	4
	금융·보험업	-1	-3	1	-8	5	-8
	20대	-9	-5	13	-4	-15	3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5] 대규모 사업체의 20대 청년층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 직종별로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고용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반면 단순노무종사자의 증가세 지속(4개월째 고용 증가폭 10만 명 이상 유지)

<표 17> 직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2014	2013. 3	2014. 3	2015. 3
취업자 전체	436	386	533	249	649	338
관리자	-51	-61	-7	-60	-26	-39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06	175	157	114	189	60
사무종사자	108	118	93	81	170	74
서비스종사자	77	29	122	1	159	37
판매종사자	114	23	75	-6	88	-6
농림어업숙련종사자	6	1	-64	33	-38	-72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29	-58	26	-110	24	5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9	135	63	178	61	55
단순노무종사자	-52	23	67	18	22	18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 2015년 3월 임금근로자의 신규채용 규모는 2,93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5개월째 연속 증가)
 - 임금근로자의 신규채용 규모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2009~2010년 동안 증가했다가 감소세가 지속(최근 5개월째 연속 증가세)
 - 2015년 3월 신규채용 규모는 전년동월대비 96천 명 증가. 주로 일용직과 임시직 중심으로 신규채용 규모가 증가했고,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활발
 - 2014년에 이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금융보험업에서 신규채용 규모는 부진하며, 공공행정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문에서 신규채용 규모 또한 부진
 - 특히 25~29세 청년층의 신규채용 규모는 전년동월대비 15천 명 감소하여 20대 초반 연령대와 대비
 - 20대 초반 청년층의 신규채용은 주로 임시직(41천 명 ↑)으로, 도소매업(11천 명 ↑)과 교육서비스업(18천 명 ↑)에 집중

〈표 18〉 임금근로자의 신규채용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2014	2013. 3	2014. 3	2015. 3
임금근로자 전체		315	483	548	322	654	402
(신규채용)		-108	-37	-1	-122	24	96
지위별	상용직	-5	0	-6	-18	7	-2
	임시직	-56	-48	16	-110	79	11
	일용직	-47	11	-11	5	-62	88
연령별	20~24세	11	5	-2	-34	19	17
	25~29세	-51	-1	-4	-33	9	-15
	40대	-46	-29	-26	-57	-39	34
	50세 이상	37	12	50	20	51	78
산업별	제조업	-20	-10	-36	7	-7	4
	도소매업	-20	-14	11	-36	9	16
	음식·숙박업	-3	11	17	-40	27	55
	건설업	-12	21	11	34	-18	46
	금융보험업	1	-8	-2	-6	-6	-8
	공공행정 등	-10	-7	1	-13	14	-10
	보건업 등	-4	-2	14	-2	41	-17
규모별	중소규모	-90	-43	8	-111	36	73
	대규모	-18	5	-10	-11	-12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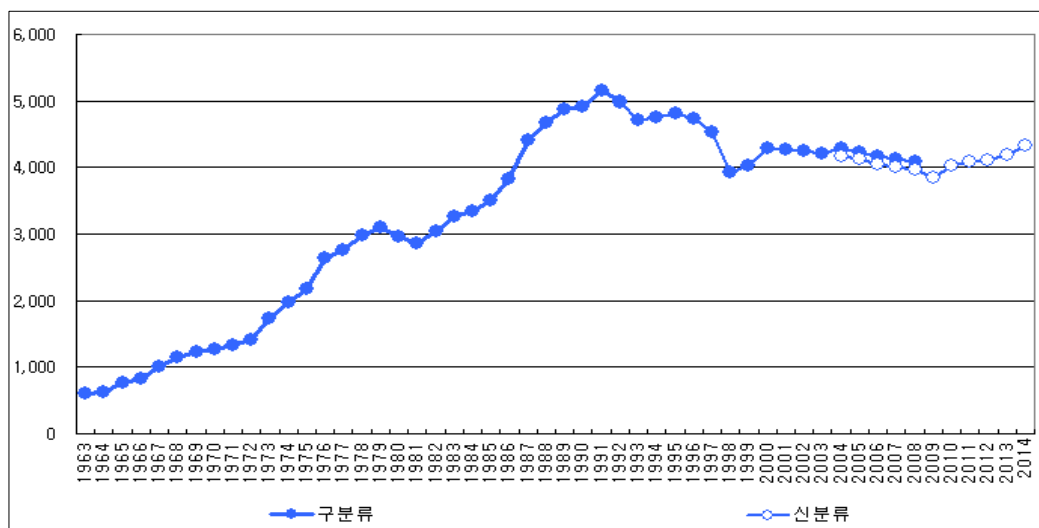
주 : 신규채용은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간주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1) 제조업 부문 : 생산·내수·수출 하락, 고용 증가세 지속

- ◎ 제조업 부문의 생산증가율은 2015년 2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4.8% 하락했으며, 내수, 수출 모두에서 각각 3.5%, 6.0% 하락
- 제조업 고용은 2015년 2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159천 명 증가(2015년 3월 현재 116천 명 ↑). 2014년 8월 219천 명 증가한 이후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증가세는 지속
- 제조업 취업자 증가율은 2014년 3.5%로 2013년 비해 1.6%p 상승
-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2012년부터 낮은 수준에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제조업 고용은 증가세 지속

[그림 26] 제조업 고용규모 추이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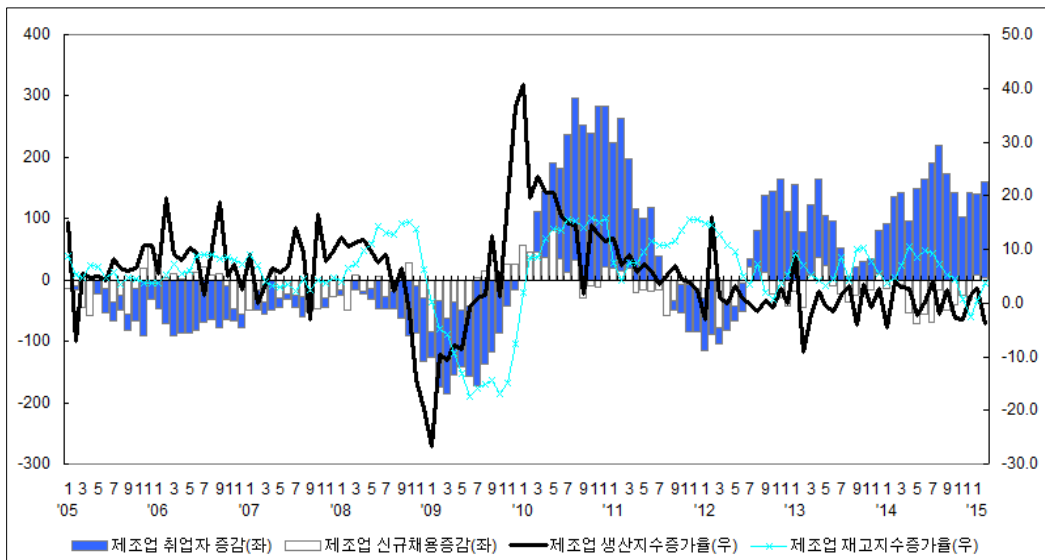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 제조업 고용은 2012년 7월부터 증가 추세이며, 2014년 가파른 증가세
 - 제조업 상용직의 고용은 2014년 9월 전년동월대비 250천 명 증가한 이후 고용 증가폭 둔화가 지속(2015년 3월 현재 116천 명 ↑)되고 있으나 제조업 고용 증가를 견인하는 역할
 - 여기에 일용직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고용이 증가
 - 특히 대규모 제조업 사업체의 고용은 2013년 9월(5천 명 ↓)을 제외하면 최근 3년간 고용이 증가. 대규모 제조업의 고용은 상용직 중심으로 증가(78천 명 ↑)
 - 2014년 10월부터 40대 취업자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부문 40대 취업자는 증가 추세(25천 명 ↑)
 - 25~29세 청년층의 취업자 또한 감소하는 가운데 제조업 부문에서 이들 연령층의 고용은 증가세 유지(19천 명 ↑)

[그림 27] 제조업 고용 증감 및 생산증가율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19〉 제조업 취업자 고용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2014	2013. 3	2014. 3	2015. 3
제조업 취업자 전체		14	79	146	123	143	116
(신규채용)		-20	-10	-36	7	-7	4
지위별	상용직	84	152	209	165	190	162
	임시직	-18	-14	-35	-15	-4	-32
	일용직	-26	-19	-16	-7	-7	1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7	-16	-6	-11	-18	8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6	-12	2	-4	0	-15
	무급가족종사자	-12	-12	-9	-5	-17	-6
성별	남성	19	92	109	141	81	118
	여성	-5	-12	37	-18	62	-2
연령별	20세 미만	1	2	4	7	11	-11
	20~24세	13	18	12	15	4	19
	25~29세	-38	-45	16	-44	-14	19
	30대	-23	74	13	94	42	17
	40대	-3	-43	13	-31	-4	25
	50~54세	24	26	17	22	36	4
	55~59세	25	34	76	30	84	8
	60세 이상	16	12	-5	30	-15	35
규모별	중소규모	-41	39	79	62	86	38
	대규모	55	41	67	61	57	7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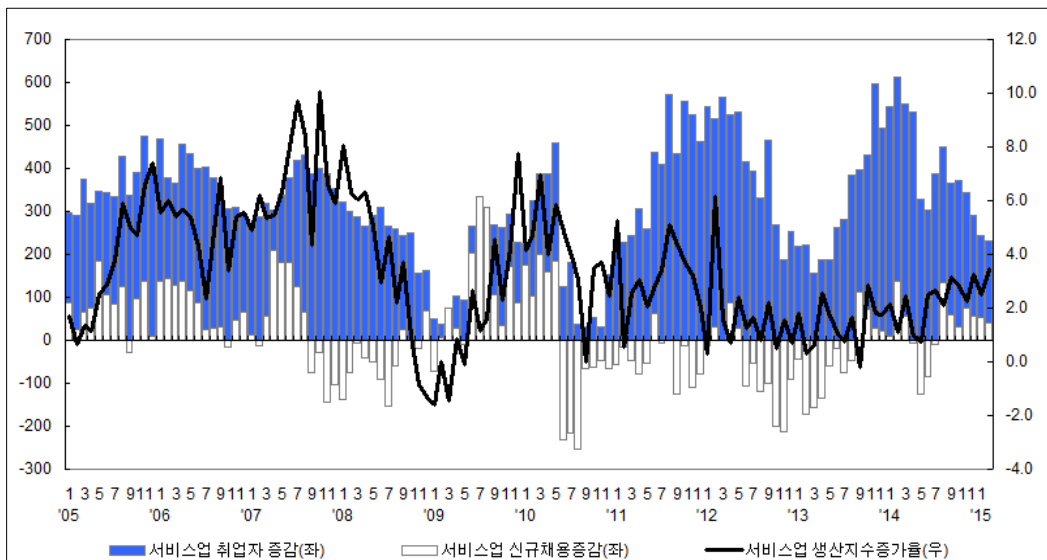
(2) 서비스업 부문 : 생산 증가, 고용 증가폭 둔화

- ◎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은 2015년 2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2.9% 증가(전월대비 1.6% 증가)
 -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은 2014년 이후 소폭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율은 1.1%(2015년 3월)로 저조한 실적
 - 서비스업 고용은 2015년 3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197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쳐 증가폭이 크게 둔화(2014년 1월 현재 545천 명 ↑)
 - 서비스업 취업자는 2013년 3월 저점(155천 명 ↑)에 도달한 이후 고용 증가폭이 확

- 대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14년 8월 이후 증가폭 둔화세 지속
- 2015년 3월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폭 둔화는 상용직의 둔화와 더불어 임시직의 고용 증가폭 둔화에 기인. 여기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3개월째 연속 감소
- 2014년 7월 전년동월대비 246천 명까지 증가했던 서비스업 임시직의 고용은 49천 명 증가하는 데 그침
-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을 특징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 24~29세, 40대,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 증감이 다른 양상을 보임

[그림 28]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를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20〉 서비스업 특징별 고용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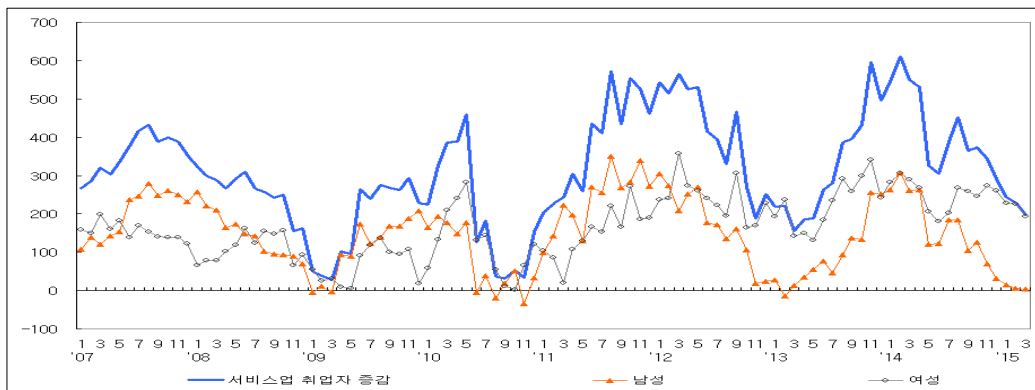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2014	2013. 3	2014. 3	2015. 3
서비스업 취업자 전체		416	318	424	155	551	197
(신규채용)		-62	-39	28	-155	57	51
지위별	상용직	345	419	236	421	333	165
	임시직	36	-65	156	-177	147	49
	일용직	-65	-9	-15	-20	-21	7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52	-12	41	-18	26	4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53	-4	-16	-16	28	-40
	무급가족종사자	-6	-11	20	-35	37	-26
성별	남성	175	93	170	14	261	3
	여성	241	225	254	142	290	193
연령별	20세 미만	0	-10	19	-11	17	8
	20~24세	75	8	74	7	58	65
	25~29세	-97	-16	-45	-74	-12	-56
	30대	26	-76	-7	-74	-29	-22
	40대	36	95	43	39	131	-70
	50~54세	75	75	43	73	44	15
	55~59세	137	109	88	78	137	70
	60세 이상	164	132	209	119	206	186
규모별	중소규모	417	256	361	117	478	192
	대규모	-1	62	62	38	73	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9] 서비스업 성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21〉 서비스업 남성 취업자 특징별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2014	2013.2	2014.2	2015.2
서비스업 남성 취업자 전체		175	93	170	14	261	3
산업별	도소매업	18	-46	75	-97	113	2
	운수업	38	31	-7	21	7	-11
	음식·숙박업	28	35	87	15	115	6
	금융·보험업	-18	17	-13	-16	11	-26
	공공행정 등	-2	-8	-10	-18	11	-23
	기타 개인서비스업	2	12	-53	32	-32	-72
규모별	중소규모	155	57	134	-17	217	19
	대규모	-10	0	-2	-9	6	-7
지위별	상용직	126	159	54	153	118	44
	임시직	12	-48	93	-94	70	-7
	일용직	-28	10	3	15	3	16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37	-22	34	-31	33	1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38	-5	-12	-21	31	-53
	무급가족종사자	-10	0	-2	-9	6	-7
연령별	30세 미만	-8	6	20	-38	36	18
	30대	-2	-95	-1	-99	-28	-18
	40대	35	57	-1	45	56	-72
	50세 이상	150	124	151	107	197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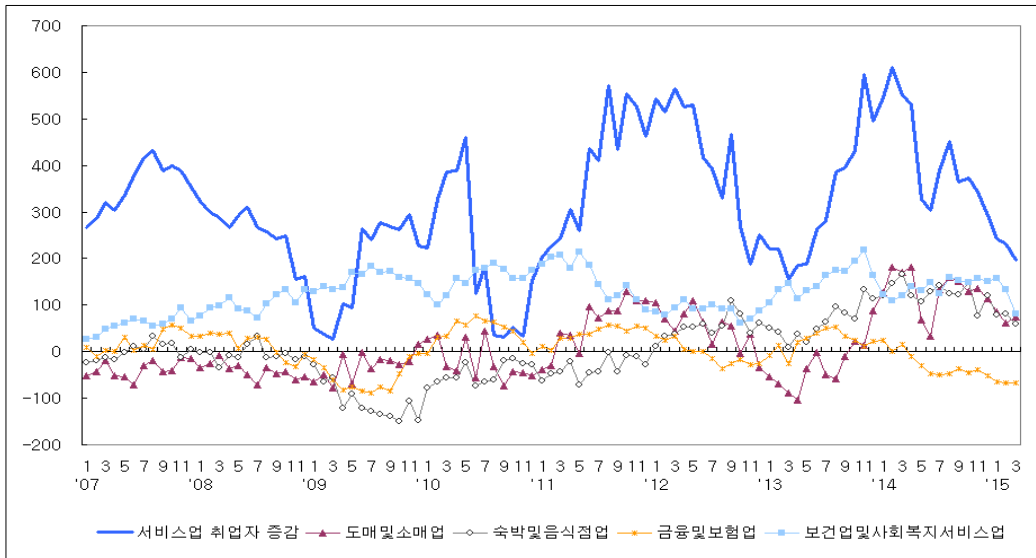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 둔화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 둔화에서 비롯

-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고용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74천 명 ↑, 60천 명 ↑ 증가하는 데 그침(기저효과)
- 여기에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문 고용이 3월 현재 82천 명 증가하는 그쳐 고용 증가폭이 10만 명 미만으로 진입. 주로 사회복지서비스업(87) 부문에서 고용 증가폭이 크게 둔화
- 한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5천 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44천 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58천 명 ↑) 등 부문에서 고용 증가

[그림 30] 서비스업 부문 주요 업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취업자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증가폭 둔화

- 도소매업의 취업자 증감은 서비스업 전체 취업자 증감 흐름과 흡사
- 2015년 3월 현재 도소매업의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4천 명 증가하는 데 그침. 이는 2014년 10만 명이 넘던 고용 증가폭에 비해 둔화(기저효과 반영)
- 2014년 도소매업 취업자는 전년대비 132천 명 증가하면서 2014년 고용 증가세를 견인. 2014년 도소매업 취업자가 증가할 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감소했으나 2015년 3월 현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천 명 증가하면서 4개월째 연속 증가(2014년 3월 110천 명 ↑, 2015년 3월 6천 명 ↓)
- 음식·숙박업의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60천 명 증가에 그쳐 증가폭 둔화(기저효과 반영)
- 음식·숙박업의 신규채용 규모는 2014년 하반기부터 증가세 지속(2015년 3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55천 명 증가)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임시·일용직 중심의 신규채용

〈표 22〉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특징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2014	2013. 3	2014. 3	2015. 3
도소매업 취업자 전체		51	-29	132	-89	170	74
(신규채용)		-20	-14	11	-36	9	16
지위별	상용직	51	68	94	35	139	51
	임시직	-10	-45	47	-89	27	0
	일용직	-14	-13	-5	8	-8	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	-20	0	-27	9	1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3	-15	-17	5	-21	2
연령별	15~19세	3	-4	6	-3	13	-13
	20대	-14	1	6	-20	-4	21
	30대	3	-72	57	-105	69	3
	40대	2	43	3	68	1	-19
규모별	중소규모	58	-29	116	-84	137	85
	대규모	-7	0	16	-5	33	-11
음식·숙박업 취업자 전체		53	64	127	10	166	60
(신규채용)		-3	11	17	-40	27	55
지위별	상용직	5	33	25	41	34	21
	임시직	39	36	79	20	99	48
	일용직	-28	13	-15	-8	-20	2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5	-15	22	-14	-1	2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	-5	4	-25	32	-32
연령별	20대	32	33	54	-6	99	11
	40대	-36	-23	-7	-49	29	-18
	60세 이상	22	13	33	14	21	49
규모별	중소규모	54	62	125	8	158	65
	대규모	-2	2	2	2	8	-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 금융·보험업은 2014년에 시작된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취업자 감소세 지속
 - 금융·보험업 취업자는 2014년 4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5년 3월 현재 전년 동월대비 67천 명↓)
 - 상용직과 임시직을 중심으로 감소.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도 구조조정이 진행

〈표 23〉 금융·보험업 특징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2014	2013. 3	2014. 3	2015. 3
금융·보험업 취업자 전체		-4	22	-26	-26	15	-67
(신규채용)		1	-8	-2	-6	-6	8
지위별	상용직	-4	25	-26	5	-3	-31
	임시직	2	-2	-2	-26	10	-30
성별	남성	-18	17	-13	-16	11	-26
	여성	14	5	-13	-10	4	-40
연령별	20대	-12	-15	-8	-28	-5	-17
	40대	12	-4	3	-16	21	-25
	55~59세	-5	5	4	4	3	8
규모별	중소규모	9	21	-28	-15	1	-49
	대규모	-13	1	2	-11	14	-1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 부문 고용 감소세 지속

- 공공행정 등 취업자는 2014년 6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5년 3월 현재 전년 동월대비 57천 명 감소, 신규채용 규모 또한 전년동월대비 감소(10천 명↓)
- 특히 상용직의 감소폭이 2014년 10월부터 급격히 확대, 전 연령층에서 고용 감소

〈표 24〉 공공행정 등의 특징별 고용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2014	2013. 3	2014. 3	2015. 3
공공행정 등 취업자 전체		0	14	-8	-16	29	-57
(신규채용)		-10	-7	1	-13	14	-10
지위별	상용직	9	7	1	-12	34	-34
	임시직	-3	7	-10	3	-10	-23
연령별	20대	-6	-3	15	-4	26	-16
	30대	-7	-17	-11	-29	6	-14
	40대	-5	14	-23	0	-25	-1
	50세 이상	18	20	10	18	20	-2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3) 농림어업 부문 : 취업자 감소세 둔화

- ◎ 농림어업 취업자는 2015년 3월 현재 1,25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천 명 감소
 -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농림어업 취업자의 감소세는 빠르게 진행. 2014년 2월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2014년 10월 146천 명까지 감소한 이후 감소세 둔화
 - 농림어업 특성상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중심으로 감소
 - 2015년 3월 현재 60~64세 연령층의 고용 감소폭이 크게 둔화
 - ※ 2014년 농림어업조사(12월 1일 기준) 농가, 어가 각각 2만1천 가구, 1천5백 가구 감소. 농어가 인구는 전년대비 101천 명 감소
 - ※ 농림어업 취업자가 2014년 2월 이후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 중에는 2008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로 바뀌는 제도 변경으로 인해 많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되면서 농림어업 65세 이상 취업자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수급대상자는 시기별로 변화:
 - * 2008년 1월~6월 : 70세 이상 노인의 60%
 - * 2008년 7월~12월 : 65세 이상 노인의 60%
 - * 2009년 1월~2014년 6월 : 65세 이상 노인의 70%
 - *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제도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 도입
- ◎ 2014년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율 -4.5%로 급격히 하락
 - 농림어업 성장률 또한 전년대비 2.8% 감소. 농림어업 취업자는 경기순응적 패턴을 보이는 가운데 국제금융위기 전후 경기에 반응하는 시차가 다름(2009년부터 경기동행 패턴을 보임)
 - 농림어업 30~40대 연령층의 취업자 비중 하락세 지속

〈표 25〉 농림어업 특징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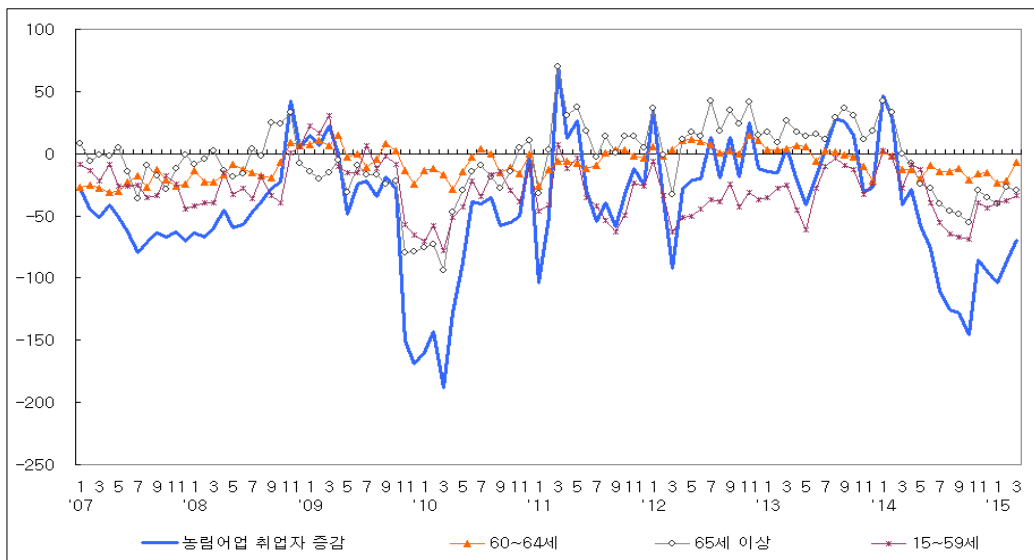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2014	2013. 3	2014. 3	2015. 3
농림어업 취업자 수		1,528	1,520	1,452	1,094	1,123	1,036
(취업자 비중)		6.2	6.1	5.7	4.6	4.5	4.1
취업자 증감	전 체	-14	-8	-68	5	-41	-70
	비임금근로자	6	-2	-61	16	-37	-55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6	6	-4	-1	2	16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	-5	-29	1	-32	-55
	무급가족종사자	12	-2	-28	16	-7	-16
	15~59세	-38	-26	-36	-26	-28	-34
	60~64세	6	-1	-12	4	-13	-7
	65세 이상	18	20	-20	26	0	-29
	5인 미만	-14	-7	-69	4	-41	-6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31] 농림어업 취업자의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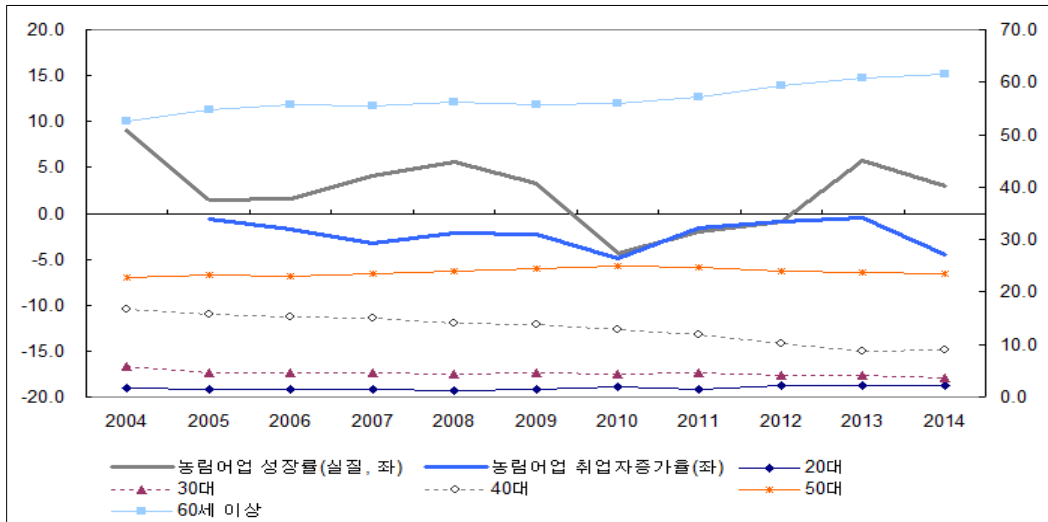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주: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14년 7월부터 지급.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32] 농림어업 성장률(실질), 취업자 증가율, 연령별 취업자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건설업 취업자는 2014년 4월 이후 증가세 지속

- 2015년 3월 현재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9천 명 ↑
- 상용직 고용은 감소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을 중심으로 고용 증가

<표 26> 건설업 특징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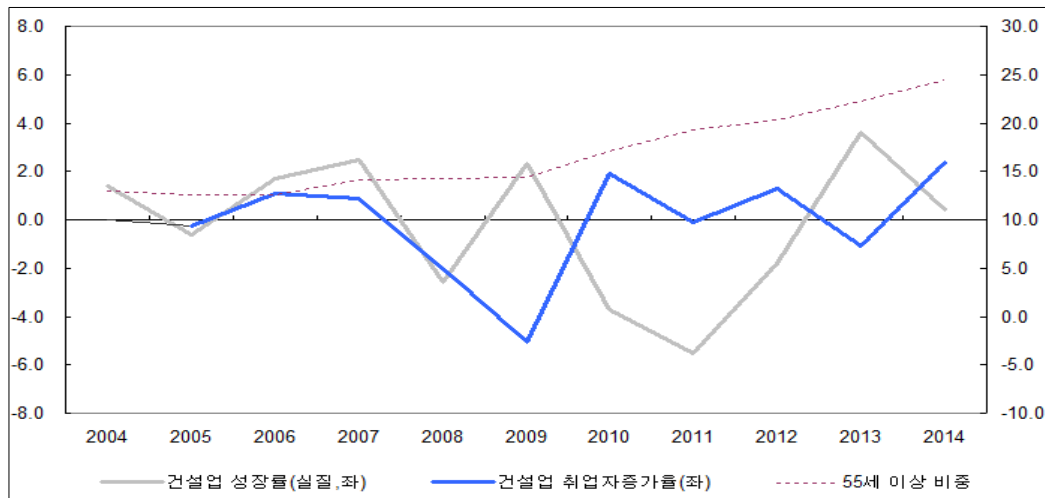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2014	2013, 3	2014, 3	2015, 3
건설업 취업자 전체		22	-19	42	-51	5	79
(신규채용)		-12	21	11	34	-18	46
지위별	상용직	11	24	4	-3	9	-5
	임시직	-18	-16	25	-25	15	29
	일용직	-12	0	0	-21	5	28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5	-15	9	0	-8	21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33	-8	4	-1	-16	3
성별	남자	31	-12	31	-38	-8	67
	여성	-19	-21	-12	-21	-28	1
연령별	30대	0	-6	-8	-13	-18	-14
	40대	39	24	60	20	47	94
	55세 이상	18	-20	52	-52	16	83
규모별	중소규모	18	-20	52	-52	16	8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33] 건설업 성장률(실질), 취업자 증가율, 55세 이상 취업자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6. 지역별 고용 상황

◎ 고용률 등 취업활동은 지역별 편차가 있음.

- 광역시도의 2015년 3월 고용률은 제주도(65.7%), 충청남도(61.2%), 경상북도(61.1%) 순으로 높고, 강원도(55.0%), 부산(55.5%), 전라북도(57.0%) 순으로 낮게 나타남
- 거주지 기준 취업자 수는 경기도(6,276천 명), 서울(5,090천 명), 부산(1,643천 명) 순으로 많고, 제주도(318천 명), 울산(548천 명), 강원도(697천 명) 순으로 적게 나타남
- 광역시도의 2015년 3월 실업률은 인천(5.4%), 부산(4.9%), 서울(4.8%) 순으로 높고, 제주도(1.3%), 전라북도(1.6%), 광주(2.5%) 순으로 낮게 나타남
- ※ 전년동월과 비교하여 고용률이 높게 상승한 곳은 전라북도(1.4%), 강원도(1.3%), 대전(1.2%)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락한 곳은 제주도(-1.2%), 경상북도(-1.1%), 경상남도(-0.9%) 순으로 나타남

〈표 27〉 지역별 고용지표(2015년 3월 기준)

	고용률(%)		취업자 수(천 명)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 체	59.5	0.1	25,501	338	62.0	0.2	4.0	0.2
서울특별시	59.5	-0.7	5,090	-36	62.5	-0.7	4.8	-0.7
부산광역시	55.5	0.6	1,643	20	58.3	1.0	4.9	1.0
대구광역시	58.6	0.8	1,222	22	60.9	0.4	3.9	0.4
인천광역시	60.1	-0.4	1,464	15	63.6	-0.3	5.4	-0.3
광주광역시	57.7	-0.4	730	3	59.2	-1.0	2.5	-1.0
대전광역시	59.4	1.2	770	23	62.2	1.7	4.4	1.7
울산광역시	57.7	-0.4	548	2	59.4	-0.4	2.9	-0.4
경기도	61.0	0.9	6,276	200	63.6	1.1	4.2	1.1
강원도	55.0	1.3	697	23	57.2	1.3	3.9	1.3
충청북도	60.3	0.8	799	21	62.9	0.8	4.1	0.8
충청남도	61.2	-0.8	1,159	16	63.6	-0.4	3.8	-0.4
전라북도	57.0	1.4	870	28	58.0	0.8	1.6	0.8
전라남도	60.1	0.3	903	14	62.1	0.0	3.1	0.0
경상북도	61.1	-1.1	1,392	-11	63.4	-0.6	3.6	-0.6
경상남도	58.7	-0.9	1,621	-2	60.6	-0.6	3.2	-0.6
제주도	65.7	-1.2	318	2	66.5	-1.9	1.3	-1.9

자료 : 통계청 KOSIS(경제활동인구조사).

◎ 주요 지역 고용동향

○ 전라북도

- 2015년 3월 전라북도 고용률은 57.0%로 전년동월대비 1.4%p 상승
-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5천 명), 건설업(1천 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0천 명), 그리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2천 명)에서 증가하였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업(-11천 명)에서 감소하였음
- 직업별로 보면, 서비스·판매종사자(29천 명), 농림어업종사자(8천 명)와 기능·기계 조작 및 단순종사자(11천 명)에서 증가하였고, 전문·기술·행정관리직(-5천 명), 사무종사자(-14천 명)에서 감소하였음

-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57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천 명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전년동월대비 임시근로자는 13천 명, 일용근로자는 3천 명 증가하고, 상용근로자는 4천 명 감소하였음

○ 강원도

- 2015년 3월 강원도 고용률은 55.0%로 전년동월대비 1.3%p 상승
-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5천 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천 명),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14천 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7천 명)에서 증가하였고, 광공업(-4천 명)에서 감소하였음
- 직업별로 보면, 서비스·판매종사자(2천 명), 농림어업숙련종사자(5천 명), 기능·기계조작 및 단순종사자(27천 명)에서 증가하였고, 전문·기술·행정관리직(-8천 명), 사무종사자(-3천 명)에서 감소하였음
-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47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천 명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10천 명, 임시근로자는 10천 명, 일용근로자는 7천 명 증가하였음

〈표 28〉 주요 지역 취업자 수 및 변화: 전라북도·강원도(2015년 3월 기준)

(단위: 천 명, %)

		2014. 3	2015. 2	2015. 3	전년동월대비		
					증감 수	증감률	
전라북도	전체	842	846	870	29	3.4	
	산업별	농림어업	112	102	117	5	4.5
		광공업	119	123	119	0	0.0
		제조업	118	123	118	0	0.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611	621	634	24	3.8
		건설업	67	65	68	1	2.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51	169	171	20	13.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15	312	327	12	3.9
		전기·운수·통신·금융업	78	75	68	-11	-13.4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직	168	161	163	-5	-3.2
		사무직	122	116	108	-14	-11.3
		서비스·판매직	166	192	194	29	17.4
		농림어업직	109	101	117	8	7.2
	종사상지위별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278	276	289	11	4.0
		비임금근로자	283	277	299	16	5.8
		자영업주	233	233	245	12	5.0
무급가족종사자		50	44	54	5	9.7	
임금근로자		559	569	571	12	2.2	
상용		350	357	346	-4	-1.1	
일용	151	148	164	13	8.5		
일용	58	64	61	3	5.3		
강원도	전체	674	655	697	23	3.5	
	산업별	농림어업	73	45	77	5	6.2
		광공업	57	58	53	-4	-7.1
		제조업	51	54	49	-2	-4.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545	552	568	23	4.2
		건설업	50	45	50	0	0.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64	169	167	2	1.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73	277	287	14	4.9
		전기·운수·통신·금융업	57	61	64	7	12.3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직	124	123	116	-8	-6.5
		사무직	97	93	94	-3	-3.4
		서비스·판매직	166	171	169	2	1.4
		농림어업직	66	42	71	5	8.0
	종사상지위별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221	227	248	27	12.3
		비임금근로자	228	200	226	-3	-1.1
		자영업주	182	164	184	2	1.2
무급가족종사자		46	36	42	-5	-10.0	
임금근로자		446	455	472	26	5.8	
상용		301	309	310	10	3.2	
일용	122	115	132	10	7.9		
일용	23	31	30	7	30.4		

주: 증감률은 취업자 증가율임.
 자료: 호남지방통계청(2015. 4), 『2015년 3월 광주·전남지역 고용동향』.
 동남지방통계청(2015. 4), 『2015년 3월 강원지역 고용동향』.

○ 제주도

- 2015년 3월 제주도 고용률은 65.7%로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
-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2천 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2천 명)에서 증가하였고, 광공업(-1천 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9천 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2천 명)에서 감소하였음
- 직업별로 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직(1천 명), 서비스·판매종사자(8천 명)와 농림어업숙련종사자(1천 명)에서 증가하였고, 사무종사자(-1천 명)와 기능·기계조작 및 단순종사자(-7천 명)에서 감소하였음
-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19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 명 감소하였으며, 이 중 전년동월대비 임시근로자는 3천 명 증가하였으나 상용근로자는 5천 명, 일용근로자 3천 명 감소하였음

○ 경상북도

- 2015년 3월 경상북도 고용률은 61.1%로 전년동월대비 1.1%p 하락
- 산업별로 보면, 광공업(3천 명), 건설업(2천 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1천 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8천 명)에서 증가하였고, 농림어업(-27천 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9천 명)에서 감소하였음
- 직업별로 보면, 기능·기계조작 및 단순종사자(30천 명)에서 증가하였고, 사무직(-1천 명), 서비스·판매종사자(-17천 명)와 농림어업직(-24천 명)에서 감소하였음
-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86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천 명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23천 명), 임시근로자(2천 명)와 일용근로자(2천 명) 모두에서 증가하였음

〈표 29〉 주요 지역 취업자 수 및 변화: 제주도·경상북도(2015년 3월 기준)

(단위: 천 명, %)

		2014. 3	2015. 2	2015. 3	전년동월대비		
					증감 수	증감률	
제주도	전 체	316	318	318	2	0.7	
	산업별	농림어업	52	52	53	0	0.8
		광공업	14	13	13	-1	-7.7
		제조업	14	12	13	-2	-12.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249	254	252	3	1.2
		건설업	23	25	25	2	8.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78	90	90	12	15.8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10	101	101	-9	-8.1
		전기·운수·통신·금융업	38	37	36	-2	-6.1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직	49	51	49	1	1.0
		사무직	37	35	36	-1	-1.9
		서비스·판매직	81	91	89	8	10.4
		농림어업직	46	42	46	1	1.1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104	99	98	-7	-6.2
	종사상시위별	비임금근로자	112	114	119	7	6.2
		자영업주	94	90	96	2	2.2
		무급가족종사자	18	24	23	5	26.7
		임금근로자	204	204	199	-5	-2.4
		상용	110	109	105	-5	-4.3
		임시	65	67	68	3	4.5
일용		29	28	27	-3	-9.9	
경상북도	전 체	1,403	1,339	1,392	-11	-0.8	
	산업별	농림어업	260	200	233	-27	-10.5
		광공업	276	283	279	3	1.1
		제조업	274	282	277	3	1.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867	856	880	13	1.5
		건설업	85	79	88	2	2.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78	277	270	-9	-3.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82	371	394	11	3.0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21	129	129	8	6.3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직	187	196	188	0	0.2
		사무직	195	184	193	-1	-0.7
		서비스·판매직	287	273	270	-17	-5.9
		농림어업직	249	195	225	-24	-9.6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486	491	516	30	6.3
	종사상시위별	비임금근로자	568	511	529	-39	-6.8
		자영업주	435	405	411	-24	-5.5
		무급가족종사자	133	105	118	-15	-11.1
		임금근로자	835	829	863	27	3.3
		상용	550	573	573	23	4.2
		임시	224	197	226	2	0.9
일용		61	59	64	2	3.9	

주: 증감률은 취업자 증가율임.
 자료: 호남지방통계청(2015. 4), 『2015년 3월 제주지역 고용동향』,
 동남지방통계청(2015. 4), 『2015년 3월 대구·경북지역 고용동향』.